

제5편

군포시의 출범과 지방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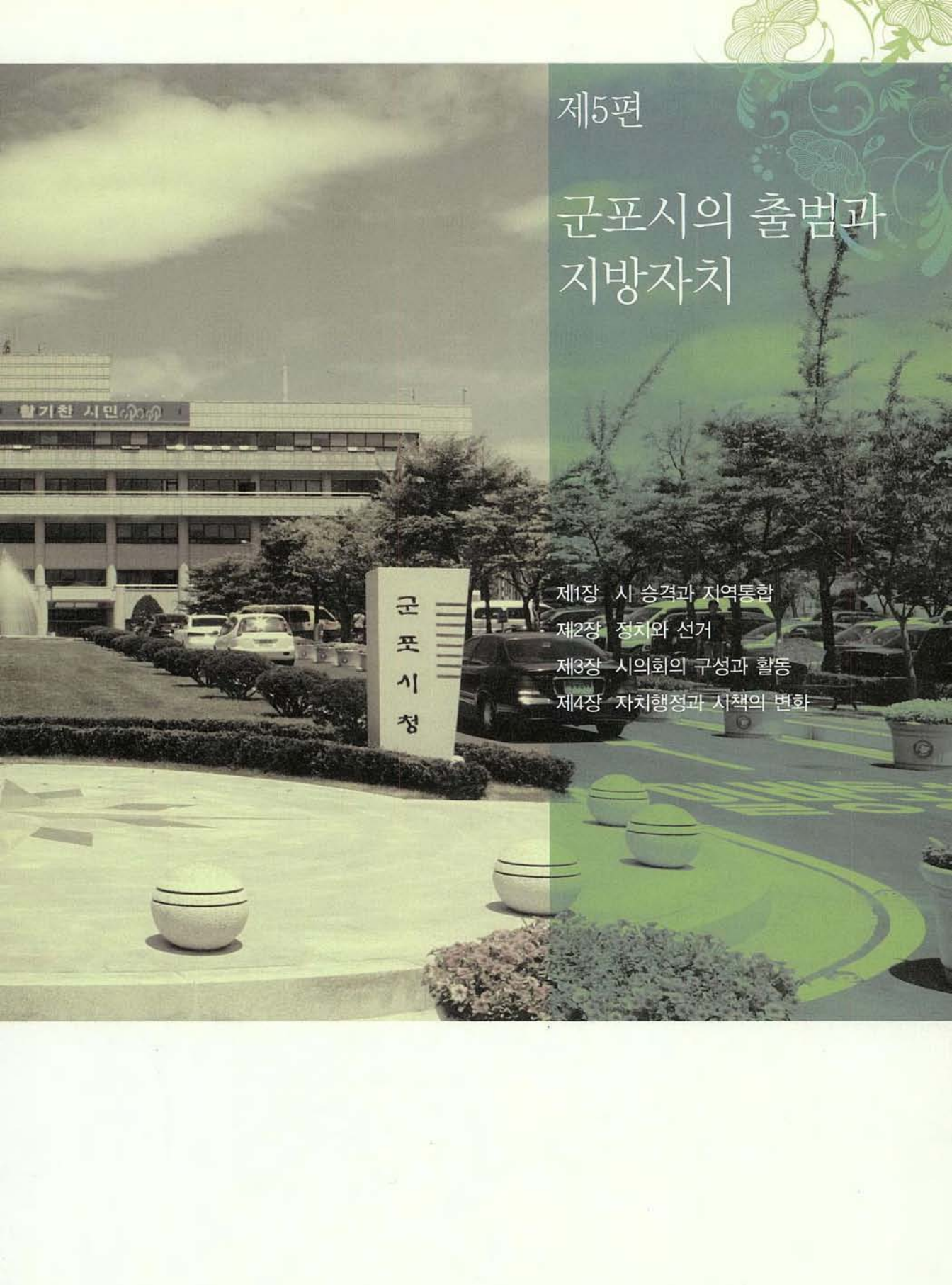
제1장 시 승격과 지역통합

제2장 정치와 선거

제3장 시의회의 구성과 활동

제4장 자치행정과 시책의 변화

군
포
시
청



제1장 시 승격과 지역통합

이승역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학예연구관

1. 시 승격과 승격방안

1914년에 형성된 시흥군은 옛 과천군, 시흥군, 안산군 지역을 통합한 지역으로, 일제시기 이후로 행정구역의 변화를 끊임없이 겪어 왔다. 특히 서울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으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관내의 주요 읍 지역이 지속적으로 시로 승격·분리되어 나갔다. 이에 따라 1988년 해체 당시 시흥군은 군포·의왕·소래읍과 수암·군자면 등 5개 지역만이 남게 되었다.

이 시기 시흥군은 중심부가 없이 좌우 주변 지역만이 남아 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었다. 더구나 군 행정의 중심인 군청 소재지가 시흥군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에 소재하였고, 각급 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 특히 군포·의왕·소래읍은 주변의 안양, 부천, 안산 지역의 팽창과 함께 산업시설과 인구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1980년대 후반 행정구역 분리가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11월 25일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평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공약으로 군포읍, 의왕읍 등을 시로 승격시키겠다고 언급하였다.¹⁾ 이후 1988년 5월 30일에 경기도가 군포,

1) 군포문화원 2000, 『연표로 보는 군포 역사』, 98쪽.



1988년 시흥군 관내도²⁾

〈표 1〉 1988년 시흥군 내 지역 현황

(단위 : ㎡, 명, 가구, 개소)

지역	면적	인구	가구수	사업체수
군포읍	20,687,543	83,785	23,303	198
의왕읍	53,402,677	81,364	21,658	112
소래읍	50,365,824	60,548	16,012	100
수암면	39,273,913	17,626	4,533	14
군자면	42,028,863	15,110	3,863	2

출처 : 시흥군, 『통계연보』 각 연도.

의왕, 소래, 미금, 오산읍 등 인구 5만 명 이상인 지역의 연내 시 승격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³⁾ 이어 시흥군은 시 승격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 승격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렇게 시 승격이 결정되자 승격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문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와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안양시 측이었다. 먼저 안양상공회의소는 1988년 7월 16일 군포와 의왕읍을 안양시에 편입해 줄 것을 행정당국에 건의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⁴⁾

2) 군포읍 관내의 점선은 5개 법정리(금정리, 당리, 당정리, 부곡리, 산본리) 경계를 나타내며, 흰색 표시 부분은 당시 화성군 반월면 중 현 군포시 대야동을 의미한다.

3) 군포문화원, 2000, 『연표로 보는 군포 역사』, 103쪽.

4) 『조선일보』, 1988년 7월 17일.



1988년 시흥시 승격 읍민 결의대회(이준기 제공)

안양시 편입 요구 내용이 신문지면을 통해 공개되자 군포읍과 의왕읍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군포읍과 의왕읍 주민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7월 21일에 시흥시(가칭)승격추진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8월 5일에는 군포읍과 의왕읍 주민 350명이 시흥시(가칭)승격추진위원회

를 결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면적과 인구가 적은 군포와 의왕이 각자 독자적인 시를 구성하기보다 통합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논의 과정에서 시청의 위치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당시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문진용은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었다.

인제 의왕시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설량은 구체적으로다 얘기를 허구 그렇게 해서, “의왕시도 얼마 안 되구 군포시도 얼마 안 되구. 시로 승격이 돼 봤자 면적도 좁구 인구도 적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깐 우선 의왕면하고 남면하고 한데 통합을 해서 이렇게 시로다 승격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시청을 어떻게 하느냐?”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강원도 어디 가서 우리가 자면서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 거 뭐 시청을 맨드는 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꺼 아니냐.” 그래 지금 신학대학 앞 별판이 그냥 별판이었거든요. 그냥 농지고 뭐 버, 우리가 면에 댕길 적에 버 농작물 조사 나가면 죄 타죽어서 곡식도 안되는 그 별판이었어요. 거기가. 그 넓은 별판이 있시니깐, 의왕하고 군포하고 거기가 경계거든요. 그래 “좋지 않느냐 그냥.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청 안쳐 놓고설량은 시에 들어오는 길만 잘 뚫어 놓으면 의왕서 댕기기도 좋구 군포서 댕기기도 좋구, 중앙이 되니깐 그렇게 하자.” 그래 “좋다.”고 거기서 몇 사람 나온 사람하고 군포 사람덜하고 얘기가 되 있는 거예요. 그래 와서도 한참 뭐야, 진정서도 내고 뭐도 해서 합혀자고 했었는데 …… . <문진용 씨 제보>

두 지역 주민이 통합에 쉽게 합의한 이유 중 하나는 군포와 의왕이 규모나 인구, 발전 정도가 비교적 비슷하여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주도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데 있다. 그리고 두 지역이 사회적·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다. 비록 1963년에 의왕이 시흥군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왔지만, 군포와 의왕은 생활권, 장시권, 교육이나 체신행정 등에서 동일권역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 예로 일제시기에 이미 주민들은 두 지역의 지리적 연관성, 인구와 면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하여 군포읍과 의왕의 통합을 요구한 바 있다.

근일 시흥군 남면(현 군포 지역)과 수원군 의왕면(현 의왕 지역)에 대한 폐합문제는 앞으로 어찌나 해결이 될는지 당국의 처분을 일반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데 그 사실은 시흥군 남면과 수원군 의왕면은 호수가 각각七八백 호에 불과할 뿐더러 또 지리상 밀접한 지대에 있다 하야 이것을 두 면으로 두면 인건비 기타 경비상 관계로 일반 면민들의 부담이 과중할 것은 피치 못할 사실이라 하야 당국으로서 부득이 합면문제가 농후하다는바 교육 통신 시장 등의 기관이 완비한 남면에 의왕면을 합함이 사리에 타당하다 하야 양면 면민들까지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최근 당국에서는 일반 면민의 의사를 무시함인지 기왕 내정을 변하여 의왕면을 수원군 일현면(日莸面)에 합할 뜻이 있다는 소식을 탐지한 의왕면민들은 분개하여 우리들의 생활상 경제상 교육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남면으로 합하여 달라는 합면희망지원서가 남면사무소에 답지한다고 한다.⁵⁾

시 승격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자 8월 18일 시흥시(가칭)승격추진위원회는 '시흥시(가칭)'로 승격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시흥군에 제출하였다.⁶⁾ 청원서의 내용은 시흥군의 영역이 점차 분할되어 인근 도시로 편입되면서 '시흥'의 실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군포읍과 의왕읍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하여 시흥이라는 명칭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구체적으로 제1안은 군포읍과 의왕읍을 병합하여 독립된 시흥시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2안은 군포읍과 의왕읍을 병합하고 화성군 반월면 북단 일부(대야미리, 속달리, 도마교리, 건건리, 둔대리)를 편입하여 시로 승격하자는 것이다. 진정서에 나타나는 뚜렷한 의도는 군포읍과 의왕읍을 안양시 등 인접 도시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여론을 초기에 무마하고 독립된 시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시 군포읍과 의왕읍을 합한 인구 규모는 16만 명 정도이며, “교통·통신·교육적 측면에서 타 시에 손색없는 도시기반의 여건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립 시로 격상할 수 있는 요소를 완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면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군포는 타 지역에 비해 제1로 손꼽히는 재정자립도가 확고히 정립하여 있음”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에 군포읍과 의왕읍을 병합하여 장차 시로 승격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중앙 행정기관에서 군포읍과 의왕읍을 안양시로 편입시키려는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⁷⁾

5) 합면지원서 시흥군 남면에 답지, 『동아일보』 1934년 11월 16일.

6) 시흥시(가칭)승격추진위원회, 「청원서(1988. 8. 18)」.

7) 장상철, 2007, 『시흥시의 형성과 지역통합』, 『시흥시사』 4, 시흥시사편찬위원회, 30쪽.

請 願 書

(假稱)始興市昇格推進委員會

始興郡은 서울의 南端 衛星都市로 急激한 人口의 增加 産業發展으로 安養市가 獨立된 後 連續하여 一部는 서울市로, 一部는 光明市, 一部는 果川市, 一部는 安山市로 再編됨으로서 始興郡 5個邑面의 狹小한 奇型的인 行政區域을 維持하여 오던바 본 軍浦 및 儀旺邑은 서울의 關門에 位置하면서 將來 豫測할 수 없는 發展이 招來할 것은 既定 事實입니다.

始興이란 郡名 두字가 永遠히 歷史에 남기기 爲하여는 歷史的 考證으로 보아 이 名稱을 存續시킴이 妥當하다고 思料됩니다.

一. 軍浦邑과 儀旺邑을 併合하여 京畿道 華城郡 半月面 北端 一部(大夜味里, 速達里, 渡馬橋里, 乾乾里, 屯岱里)를 包含 編入 市로 昇格코저하는 民意와 決議임을 明白히 試圖코저 이에 請願書를 作成하여 關係要路에 提出합니다.

二. 請願의 主된 趣旨로는 京畿道 始興郡의 地域的 與件에 비추어 방대한 過去는 오래前부터 歷史的 흐름에 따라 數多한 變遷을 招來하였음은 既知하는 事實임에 틀림없습니다.

三. 時代的인 要求에 依하여 서울特別市로 一部 編入되었고 現在의 安養市를 爲始하여 果川市, 光明市, 安山市등 이 京畿道 傘下로 編入됨에 따라 文字 그대로가 始興이며 畿湖地方의 劃企의 發展을 圖謀하는데 寄與하였음을 格別히 自負하고 特히 軍浦邑과 儀旺邑은 地域的 與件이(別添 郡勢參照) 接境을 이루고 있는 現實에서 날로 人口가 增加 編入되어 16萬이란 住民이 居住하고 있으며 未來에도 安樂 居住環境이 定着되어 있으므로 交通, 通信, 教育的 側面에서 他市에 比해 損色없는 都市基盤의 與件이 完壁하게 形成되어 있으므로 自立市로 格上할 수 있는 要素를 完全히 갖추고 있음을 自負합니다.

四. 特히 現 軍浦邑은 全國에서 他 地域에 比해 第1로 손꼽히는 財政 自立法가 確固히 定立하여 있음은 邑民은 自負心을 가지고 市昇格을 渴望하고 있던 此際에 虛泰愚 大統領께서도 出馬遊說에 즈음하여 現在 軍浦邑과 儀旺邑을 統合하여 將次 市로 格上함이 宜當하다고 言明하시고 이를 選舉公約으로 闡明하신바 있으므로 中央行政改革委員會에서도 大統領 公約의 一選策으로 確固히 實現토록 段階的 作業 推進하여 次期 地方自治制 實施에 맞추어 始興市로 昇格 調定함을 目的하고 拍車를 加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되는 바

五. 軍浦邑과 儀旺邑 등의 住民들은 兩邑民의 和合과 團結로서만이 市昇格의 合意點을 具現하여 한치의 錯誤없이 完壁하게 實現토록 온갖 心血을 경주하고 일찍부터 兩邑民의 代表的 人物을 選拔하여 始興市昇格推進委員會를 構成하여 目下 調定作業을 推進하고 있으며,

가. 弘報에 의하면 지난 7月17日字 朝鮮日報 朝刊記事에 따르면 軍浦邑과 儀旺邑 등은 其히 現 安養市 管轄로 編入 云云하는 記事는 可當치 않은 語不成說로서 몇몇 人士가 策略하여 安養市로 擴大 編入하고자 무모한 虛事로 알고 있으며,

나. 이 新聞의 記事를 본 이곳 邑民은 老少 莫論하고 激憤함을 禁치 못하고 있습니다.

六. 賢明하신 各界의 關係 當局에서는 第六共和國의 第一議題인 民主化의 課程을 確固히 推進함에 있어 今般 民意에 依하여 이루고저 하는 始興市를 積極的으로 活性化토록 最大限 久援을 베푸시어 邑民의 祈願이 成就토록 渴望하오니 悠久한 歷史的 傳統을 가진 "始興" 이란 名稱이 永遠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여 주심과 同時에 期必 後世 歷史에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끝.

西紀 1988年 8月 日

(假稱)始興市昇格推進委員會 委員一同

군포와 의왕의 유지들은 두 지역을 통합하여 ‘시흥시(가칭)’로 승격하려는 뜻을 밝혔으나, 시흥군은 8월 30일 시흥시(가칭)승격추진위원회 청원에 대한 회신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표명하였다. 즉, 청원 내용은 “시흥군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 및 특성, 앞으로의 발전전망,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정부의 방침과 시책을 감안하여, 제반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당시 시흥군에서 마련한 ‘시흥시승격 기본계획’은 “현 시흥군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인 소래읍을 중심으로 시를 구성하고, 과거 시흥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의 경기도 당정협의회 자료에는 이와는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군포읍과 의왕읍을 통합하여 시흥시를 구성하고 소래읍과 수암면 및 군자면을 합해 ‘소래시’를 만든다는 안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내용의 사유로는 “군포읍과 의왕읍을 단독으로 시 승격 시 면적의 협소로 독자적인 시로서 향후 발전이 미흡”할 것이며, “소래읍은 73년에 부천에서 파생된 지역으로 읍 명칭을 따서 소래시로, 군포읍은 옛 시흥 지역으로 그 얼을 살릴 수 있도록 시흥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⁹⁾

시 승격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들이 제기되던 중 주민들 내부에서도 군포와 의왕이 통합되는 데에 불만을 표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특히 의왕 주민 중 일부는 통합을 군포 중심의 시 승격으로 받아들여 반발하였고, 결국 두 지역의 통합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의왕 사람들이 별안간 밤에, 어느 날 다 결정을 해서 약속을 해 놓고는 밤에 전화가 오는데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봤으면 그래도 그것도 다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위치도 그렇구.”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왜 우리 의왕면 사람이 군포읍 사람한테 매달려 살게 되니까 안 된다.” “매달리긴 뭘 매달려, 시청을 거기다 지으면은(의왕이 더 가까운데 실제로는) 좀 좋으나, 이담에 뭐 행사를 허더래도 넓직하고 좋지 않으나. 많이 들어가고 터 잡아 봐 가지고 허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아이, 굳이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늙은이들이 쓸데없는 거시기를 험다고 욕박지르고 모두 그래설랑은 말도 못하고설랑은 밤새도록 떠들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문진용 씨 제보>

이처럼 전개된 시 승격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5개 읍면 지역을 어떻게 통합하여 시로 승격시킬 것인지였다. 초기에는 군포와 의왕권역, 소래읍과 수암·군자권역으로 분리하여 승격하는 방안이 우세하였으나 각 지역 주민 간에 이해가 표출되면서 결국 군포와 의왕은 각각 독자적으로 시를 구성하게 되었고, 소래읍과 수암·군자면은 하나의 행정구역

8) 시흥군, 「행정구역 조정(시승격) 청원에 따른 회신(1988. 8. 30)」.

9) 장상철, 2007, 「시흥시의 형성과 지역통합」, 『시흥시사』 4,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6쪽.

으로 통합되었다. 둘째는 '시흥'이라는 명칭을 어느 지역에서 사용할 것인지였다. 각 지역은 '시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큰 의의를 두었는데, 이는 시 통합의 주도권과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리적으로 시흥군 해체 과정에서 군 재산분할 등에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었다. 초기에는 통합을 전제로 하여 군포·의왕권역에서 '시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방안이 우세하였으나 통합이 결렬되면서 소래·수암·군자권역에서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각 지역 주민들과 행정당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1989년 1월 1일을 기해 군포읍은 군포시로, 의왕읍은 의왕시로 각각 독립하였고, 소래읍과 수암면·군자면은 통합되어 시흥시로 승격하였다.

2. 대야동 지역의 편입

1994년 12월 대통령령 제14434호(1994. 12. 26. 공포)에 의하여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등 4개 리가 군포시로 편입되어 대야동에 편제(조례 제364호 1994. 12. 29. 공포)되었다. 대야동은 조선시대까지 광주부 북방면에 속해 있었으며, 1906년 안산군으로 이속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수원군 반월면에 속하게 되었다. 반월면은 1949년에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신설된 화성군에 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반월면 지역은 여러 행정 단위의 경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행정구역 변경이 잦았고 주변부적 성격이 강했다. 또한 면적의 96%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주민들은 낙후지역으로서의 소외감이 상당히 컸고 지역적 정체성도 약했다.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였다. 전철 안산선의 개통과 더불어 대야미리를 중심으로 다세대주택이 건설되고 외지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정체되어 있었다.

당시 반월면의 행정구역은 비록 화성군에 편제되어 있었지만, 주민의 주 생활권은 안양과 군포였으며, 치안은 안산경찰서, 전기업무는 수원과 안양, 세무와 등기는 수원, 체신은 수원과 안산, 교육청은 오산 등지에서 담당하였다. 각 업무 담당기관이 이렇게 먼 거리에 분산되어 있어 관공서 업무를 보려면 2~3일씩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생활상의 불편과 저개발의 불만을 호소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군포시 편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대야동 지역의 편입은 군포시 승격 전인 1988년부터 논의되었다. 군포와 의왕 주민들이 조직한

시흥시(가칭)승격추진위원회는 시 승격방안의 제2안으로 반월면의 4개 리를 포함하는 내용을 청원한 바 있다. 이때는 의왕과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이것이 무산되면서 반월면 지역의 편입 논의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당시 반월면 지역을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로 각각 편입하려는 계획이 세워졌고, 반월면 주민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표 2〉 1991년 반월면 편입 요청지역 현황

(단위: km², 명, 가구)

지역	구분	면적	인구			가구수
			계	남	여	
계		15.88	4,026	2,143	1,883	1,063
속달리		5.80	280	156	124	78
둔대리		4.90	561	309	252	125
대야미리		3.24	2,835	1,494	1,341	776
도마교리		1.94	350	184	166	84

출처: 군포시, 「화성군 반월면 일부 군포시 편입 관계 동향(1992)」.

이어 군포시 승격 직후인 1989년 3월 22일 화성군은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시군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자료를 군포시에 송부하였다.¹⁰⁾ 그러나 이때 군포시는 시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며 산간지대 주민의 행정 관리에 불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지역의 편입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반월면 4개 리는 방대한 면적을 포용한 산간지역으로 지역의 여건상 별도의 동사무소를 설치·관할하여야 하나 인구가 2,600여 명으로 동사무소 개설의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전 지역의 9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군포시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현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역 주민의 소외감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셋째, 대다수의 군포 시민도 효용성이 낮은 4개 리의 편입을 원하지 않으며, 지역 간의 이질감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현 조건 하에서는 편입 주민들의 욕구 충족과 군포 시민의 화합적인 시정 구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¹¹⁾

군포시의 편입불가침이 나왔지만 4개 리 주민 31명은 1989년 9월 군포시청과 민정당 과천·시흥·의왕·군포지역구에 편입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편입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는 회신만이 왔을 뿐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2년 9월 15일 도 간부와 군포시의원 간담회에서 백남규 의원이 반월면 4개 리 편입을 건의하였다. 군포시는 이미 8월 20일 4개 리 주민 대표들을 만나 편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였는데, 주민 대표들은 군포시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당시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 개발, 당동

10) 화성군,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자료(1989. 3. 22)」.

11) 군포시·화성군, 「시군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조사서(1989. 3. 28)」.

기존 군포 시민들에게 설득시켜 나가기로 하였다.¹³⁾

당시 반월면 주민들은 면 행정구역 개편을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면을 해체하지 말고 읍으로 승격시키자는 의견, 둘째 주민의견에 따라 분할하여 각각 세 지역에 통합하자는 의견, 셋째 분할하지 말고 한 곳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두 번째 안에 따라 수원·안산·군포시 중 어느 자치단체에 통합할지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중 대야미리, 도마교리, 둔대리, 속달리 주민들은 거리가 가깝고 시의 면적이 적어 안산이나 수원보다 지역적 혜택이 많겠다고 판단하여 군포시에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¹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야동은 1994년 12월 26일에 화성군 반월면에서 군포시로 편입되었다.

대야동 지역은 수려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녔지만,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96년부터 대야미동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시에서 위탁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토지를 내놓고 시에서 도로 및 주거 구획정리사업(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소방시설 설치)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마교동에서 진행 중인 송정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3,4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대야동의 모습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야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군포 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3〉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구역	만족			보통	불만족			평점 (5점 만점)
	계	매우	약간		계	약간	매우	
당정·대야권역	21.4	2.9	18.6	54.3	24.3	17.6	6.7	2.93
산본권역	47.7	12.5	35.2	38.3	14.1	10.9	3.1	3.43
당동권역	25.3	4.5	20.8	54.1	20.5	15.2	5.3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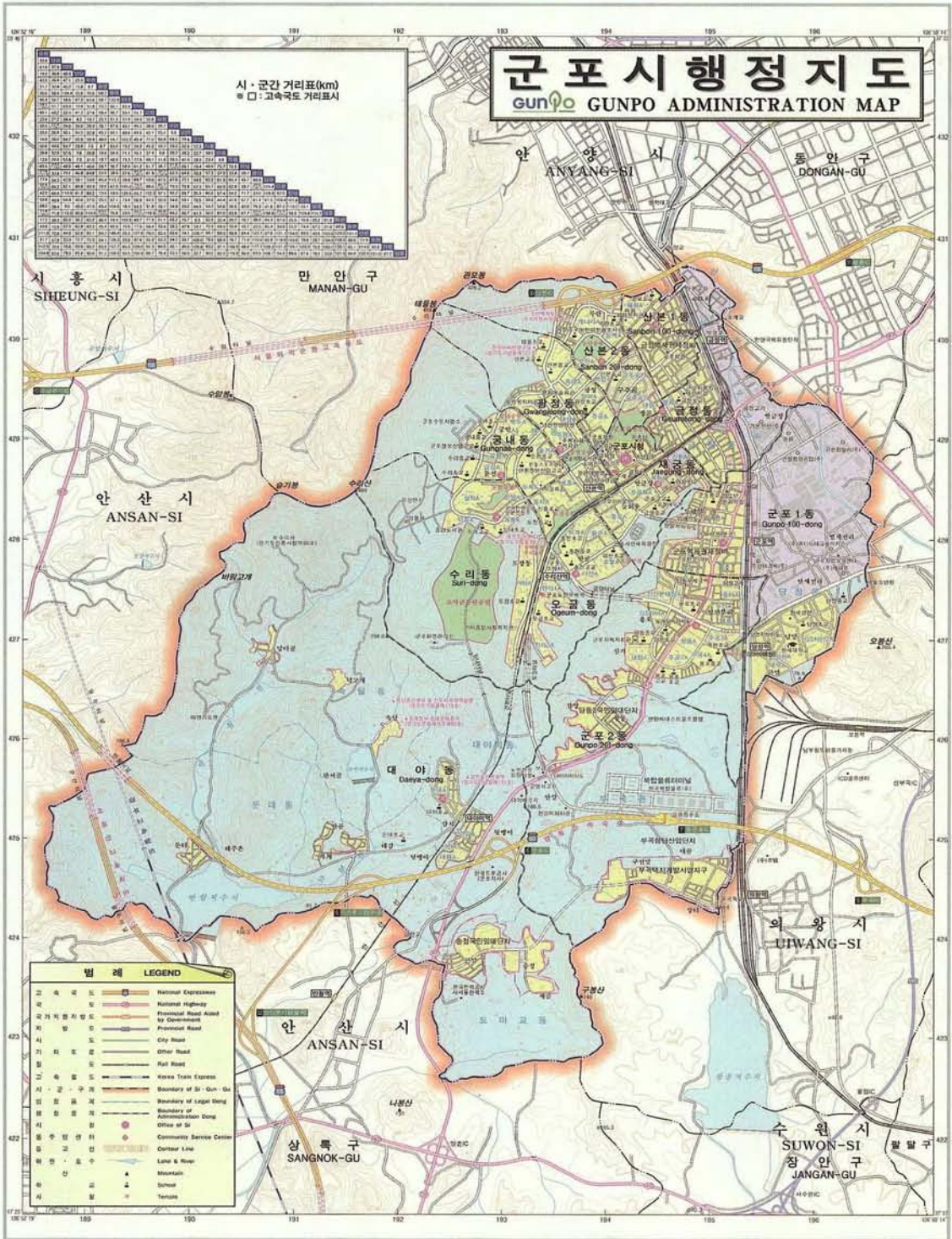
출처: 군포시, 2008, 『제2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48쪽.

군포시는 불균형 발전이 대야동 주민들을 지역적으로 통합하는 데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대야동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군포시는 『군포비전 2020』에서 대야동 지역을 군포 시민의 오픈스페이스로서 쾌적하고 여유로운 미래지향형 도시개발의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편입 후 대야동의 지역통합 과정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시로 편입되어 반월동에 편제된 지역의 주민들이 2007년에 군포시 편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13) 군포시, 『행정구역 조정자료-화성군 반월면 일부 군포시 편입』.

14)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도시화 경험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173쪽.



현행(2008년) 행정지도

제1장 시 승격과 지역통합

전개하려 한 것에 비해, 대야동 주민들은 군포시 편입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군포시에서 대야동의 지역적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지만 군포시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장단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은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3. 군포 · 안양 · 의왕 · 과천 통합 논쟁

군포 · 안양 · 의왕 · 과천 지역의 통합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안양 지역이다. 군포 · 안양 · 의왕 3개 시 통합 논의는 안양상공회의소가 1994년 2월 15일 경기도, 내무부, 국회에 건의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안양상공회의소는 “3개 시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같은 안양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군포시의회는 즉각 통합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안양시와 경기도, 내무부에 제출하였다.¹⁵⁾ 그러자 안양상공회의소는 3월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2차로 보냈고, 1995년 4월에는 3개 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까지 실시하여 3차로 통합을 건의하였다.

이후 1995년 6월 지방자치선거에 들어가면서 당시 민주당의 이석용 후보가 3개 시 통합을 성사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석용 안양시장은 당선된 후 3개 시 통합추진 의사를 밝히고, 1996년 8월 26일 구체적인 통합추진 일정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어 같은 해 10월 4일 YMCA, YWCA, 경실련, 새안양회,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등 안양시 관내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왕 · 군포 · 안양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협심새마을금고 이사장인 변원신 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추진위원회 측은 안양 시민뿐 아니라 군포와 의왕 시민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곧바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1997년 4월 초에는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군포와 의왕 지역에 배포하였다.

이석용 시장이 통합추진 의사와 통합추진 일정까지 밝히자, 군포시의회와 의왕시의회가 통합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원극 군포시장과 신창현 의왕시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애써 모른 체하였다. 그러나 안양 측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조원극 군포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군포시의 자치권을 박탈하려는 이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이

15) 군포문화원, 2000, 『연표로 보는 군포 역사』, 258쪽.

어 1997년 5월 15일 17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군포시청 회의실에 모여 통합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유병직 바르게살기협의회 군포시지부장)를 구성하고 안양 측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¹⁶⁾

당시 의왕·군포·안양 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시흥군에 함께 편제되어 있었던 점을 들고 있다. 둘째, 3개 시가 동일생활권이라는 점이다. 안양·군포·의왕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유통시설과 문화·복지·교육시설 및 교통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시의 도시기반시설들이 확충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다. 셋째, 재정적인 요인이다. 지역이 셋으로 나누어져 시청,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의 각급 행정기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시간낭비 및 제반 예산의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쓰레기소각장, 시민복지시설, 운동장 등 수백억 원씩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시설들이 각 시마다 건설되어 천문화적인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3개 시가 통합하면 1994년 기준으로 3개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액이 57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군포와 의왕 지역도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군포·의왕·안양시 통합반대추진위원회는 통합추진위원회의 논리를 반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옛 시흥군에서 시로 갈라져 승격된 곳만 해도 군포, 의왕, 안양, 과천, 광명, 안산, 시흥 등 7개 시나 된다. 안양시의 논리라면 7개 시를 한꺼번에 통합해야 한다. 둘째, 군포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살기 쾌적한 문화교육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다. 의왕시도 지난 100년 동안 광주군에서 수원군으로, 수원군에서 화성군으로, 화성군에서 시흥군으로 행정구역이 바뀔 때마다 번두리로 소외되어 왔다. 그런데 독립적인 시로 승격한 지 10년도 안 되어 다시 안양시의 번두리로 통합하자는 것은 군포와 의왕 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셋째, 3개 시 통합론의 궁극적 목적은 토지이용률이 낮은 안양시가 군포와 의왕시에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안양시가 의왕시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통합을 하면 시청,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시설들이 안양으로 집중돼 시민 불편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넷째, 통합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줄어 한 해에 53억 원을 손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면허세, 지역의료보험 등이 상승하여 주민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또 주민복지시설을 많이 짓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며 복지시설은 주민과 가까이 있을수록 편리하고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

16) 군포문화원, 2000, 『연표로 보는 군포 역사』, 372쪽.

17) 이효재, 1997, 『지역통합과 분리의 '갈등』, 『지방자치』 106, 현대사회연구소.

이러한 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1995년 이석용 안양시장이 민간 주도의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통합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확대되었으나, 이 시장의 중도 퇴진으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사그라졌다.

이후 '3개 시(안양·군포·의왕) 통합'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2003년 '지정시' 승격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부터이다. 지정(표준)시 논의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전국 9개 시(수원·부천·안양·안산·고양·성남·청주·포항·전주) 단체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광역시 성격의 자치시로 지정해 줄 것을 주무부처에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3개 시 통합이 다시 거론되었다. 당시 3개 시 통합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 김두관 장관은 2003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2004년 총선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안양과 군포, 의왕도 통합대상 예정지로 거론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여야 정치권에서는 도 및 읍면동 폐지, 서울시 분할, 3~4개 시군을 통합하여 60~70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놓고 여러 차례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5년 2월 16일에 수원시장 출신인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충북지사 출신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2명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통합하자고 주장하였다. 허태열 의원은 2006년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군포, 안양, 의왕, 과전을 1개의 광역시로 통합하는 등 전국을 인구 50만~100만 규모의 자치단체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회는 2005년 10월 19일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산하에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본격적인 행정구역 통합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05년 11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보고받은 데 이어, 12월 1~7일에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를 참석시킨 가운데 3차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월 28일 활동을 마감하면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다단계 행정체제는 기능의 중복, 인력과 예산을 소요하여 고비용·저효율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층구조 하에서는 중앙정부가 이양한 권한도 둘로 나뉘야 하고 자치단체 간에도 불균형이 심화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특히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계층(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구를 포함할 경우 4계층)으로 이뤄진 구조를 1단계 감축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을 요구했다. 즉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광역화하는 것이다.¹⁸⁾

18) 「군포, 안양, 의왕, 과전이 만났을 때」, 『군포신문』, 2006년 9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도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인 행정체제를 개편하되 획일적인 행정 개편을 지양하고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해 주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치권의 방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군포·안양·의왕 통합 논의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행정사안으로 채택되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의하면 군포시는 안양시, 의왕시 또는 과천시를 포함하는 하나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 2004년 「주민투표법」의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지역 유권자수의 3분의 1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 때 「지방자치법」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어야 하나 단순한 절차상의 과정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¹⁹⁾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일단 안양 시민 사이에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군포시와 의왕시에서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신문사나 사회단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객관성 문제와 함께 여론 형성방식에 대해 군포와 의왕 지역 측에서는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 논의 문제점 중 하나는 논의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며, 시민들의 정확한 여론이 뒷받침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다. 통합 논쟁은 밑에서 형성된 여론이 위로 전달되면서 공론화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만든 인위적 여론을 밑으로 전파시켜 공감대를 확대해 문제화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논쟁을 이끌어 가는 표면상 주체는 시민단체들이지만, 시장과 시의회가 이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공동논리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논쟁이 쉽게 시민들에게 파고들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군포시와 의왕시 측에서는 통합 논의 자체가 통합의 수순일 뿐이라고 여겨 의제화하는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행정체제 개편은 정치권 및 행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군포시도 이를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합 논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포 지역의 지방자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겠다. 시민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통합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논의의 중심은 단순히 통합 여부가 아니라, 각 지역과 부문별로 통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폭넓은 성찰이어야 한다. 지방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효율성 논리는 자칫, 지역대표를 뽑아 주민의 의견을 지역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역행하고 지방정치의 후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행정구역 개편과 시민참여」, 『군포시민신문』 2006년 1월 12일

제2장 정치와 선거

차선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1.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을 선출한 이래 2007년까지 모두 17회 실시되었다. 대통령 선출은 간접선거와 직접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간접선거 방식도 국회에 의한 선거(제1대, 제4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제8~11회),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제12대) 등 다양하게 치러졌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접선거방식은 제2~3대, 제5~7대를 거쳐 제13대부터 지금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한편 부통령 선거는 제1대부터 제5대까지 실시되었는데, 군포지역이 시로 승격한 1989년 이전 실시된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는 1948년 국회간선제로 실시되어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각각 당선되었다. 이후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으로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김성수가 2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52년 직접선거로 치러진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첫 직선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부통령에 함태영이 당선되었다. 한편, 1948년 제정된 헌법과 1952년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재선에 의해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된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

한 개헌을 시도하여 찬성 정족수인 136명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를 동원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56년 실시된 제3대 대통령선거와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부통령에는 장면이 당선되었다.

1960년 실시된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엄청난 부정선거 결과, 이승만과 이기붕이 각각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는 역사적인 4·19혁명을 야기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을 발표하였다. 결국 3·15부정선거는 국회 의결로 무효화되고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해산하였다. 같은 해 5월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하였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참의원과 민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윤보선이 당선되었다.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에 의해 민주당 정권을 붕괴시킨 박정희는 1962년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선거에 따른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1963년 실시된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42.6%를 차지한 박정희가 41.2%를 획득한 윤보선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박정희는 1967년 제6대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8대부터 제11대까지 대통령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도였다. 이 방식에 따라 1972년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1978년에도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으로 대통령이 서거하자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1979년 12월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12·12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신군부에 의해 하야하고 1980년 실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에서 전두환이 선출되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1980년 12월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내용의 대통령선거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된 간접선거에서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는 4·13호헌조치로 촉발된 6·10민중항쟁을 거쳐 여야가 합의한 경쟁규칙에 의해 실시된 최초의 선거였다. 12월 16일 시행된 선거에서는 89.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는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되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총재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출범하고 김영삼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야당에서는 평화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신정당 박찬종이 각각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선거 결과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고, 김대중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치일선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정주영도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1989년 시로 승격된 이후 첫 대통령선거를 치른 군포시의 선거 결과에서는 유효투표 6만 6,919표 중에서 김대중 후보가 2만 4,451표(36.5%)를 얻어 2만 3,934표(35.8%)를 얻은 김영삼 후보를 앞섰다.



제15대 대통령선거 개표 광경

1995년 2월 21일 신당 자유민주연합이 공식 출범하고 총재에 김종필이 취임하였다. 7월 13일에는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이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9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여 대표에 취임하였다. 12월 5일 민주자유당은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하였고, 1997년 11월 21일 다시 한나라당으로 개명하였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결과,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군포시에서는 유효투표 14만 2,045표 가운데 김대중 후보가 5만 9,056표(41.6%), 이회창 후보가 5만 4,980표(38.7%)를 획득하였다.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결로 진행되었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군포시에서는 유효투표 13만 6,414표 중에서 노무현 후보가 6만 9,269표(50.8%), 이회창 후보가 6만 85표(44.0%)를 획득하였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 3,765여 만 명 중 투표참여 유권자수

〈표 1〉 제14~16대 대통령선거 결과

(단위: 명, 표, %)

구분	지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제14대	전 국	29,422,658	24,095,170	23,775,409	319,761	5,327,488	81.9
	군포시	82,998	67,624	66,919	705	15,374	81.5
제15대	전 국	32,290,416	26,042,633	25,642,438	400,195	6,247,783	80.7
	군포시	171,630	143,582	142,045	1,537	28,048	83.7
제16대	전 국	34,991,529	24,784,963	24,561,916	223,047	10,206,566	70.8
	군포시	186,350	137,085	136,414	671	49,265	73.6

출처: 군포시, 1999, 『군포시사』, 272쪽;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표 2〉 제14~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수

(단위: 표)

제14대	합계	민주자유당	평화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당	대한정의당	무소속	무소속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중	이병호	김옥선	백기완
전 국	23,775,400	9,977,332	8,041,284	3,880,067	1,516,047	35,730	86,292	238,648
군포시	66,919	23,934	24,451	12,749	4,792	78	237	678
제15대	합계	한나라당	새정치 국민회의	국민신당	국민승리21	공화당	바른 정치연합	한국당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허경영	김한식	신정일
전 국	25,642,438	9,935,718	10,326,275	4,925,591	306,026	39,055	48,717	61,056
군포시	142,045	54,980	59,056	25,556	1,983	143	204	123
제16대	합계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하나로연합	민주노동당	사회당	호국당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규	김길수	
전 국	24,561,916	11,443,297	12,014,277	74,027	957,148	22,063	51,104	
군포시	136,414	60,085	69,269	298	6,509	111	142	

출처: 군포시, 1999, 『군포시사』, 273쪽;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가 2,373여 만 명으로 역대 가장 저조한 63.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48.7%를 득표한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군포시에서는 유효투표 13만 2,707표 중에서 이명박 후보가 6만 3,844표(48.1%), 정동영 후보가 3만 2,262표(24.3%)를 획득하였다. 각 투표구별 선거 현황과 후보자별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동별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

(단위: 명, 표)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계	대통합 민주 신당	한나라 당	민주 노동당	민주당	참조 한국당	참주인 연합	경제 공화당	새시대 참사람 연합	한국 사회당	무소속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정근모	허경영	전관	금민	이회창		
합계	203,559	133,078	132,707	32,262	63,844	4,204	651	11,661	72	601	26	75	19,311	371	70,481
부재자	4,429	4,129	4,075	856	2,003	146	47	279	10	17	1	9	707	54	300
군포1	25,887	15,092	15,055	3,645	7,440	434	91	1,144	6	82	4	4	2,205	37	10,795
군포2	27,379	18,515	18,469	4,457	8,965	578	93	1,471	7	93	7	10	2,788	46	8,864
산본1	17,985	10,477	10,443	2,818	4,795	312	71	800	7	50	2	2	1,586	34	7,508
산본2	16,259	11,348	11,328	2,712	5,525	371	44	1,053	7	53	2	4	1,557	20	4,911
금정	16,396	9,043	9,012	2,612	3,982	282	53	731	3	35	2	4	1,308	31	7,353
재궁	18,642	11,760	11,730	3,067	5,443	369	43	1,131	8	49	1	6	1,613	30	6,882
오금	19,227	13,158	13,135	3,251	5,911	457	52	1,394	8	73	3	11	1,975	23	6,069
수리	15,746	10,695	10,666	2,559	5,075	502	38	959	3	36	2	11	1,481	29	5,051
궁내	16,167	11,576	11,556	2,381	6,105	279	35	1,081	2	44	1	4	1,624	20	4,591
광정	20,835	14,185	14,147	3,094	7,111	377	57	1,381	9	53	1	8	2,056	38	6,650
대야	4,607	3,100	3,091	810	1,489	97	27	237	2	16	0	2	411	9	1,507

출처: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제2장 정치와 선거

2. 국회의원선거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년 4월 9일) 광정동 제3투표소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헌 의원을 선출한 이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기까지 서구식 민주주의를 최초로 도입한 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적용해 왔다. 제1대에서 제8대까지는 소선거구제가 채택되었고, 제6~8대에는 소선거구에 비례대표제가 가미되었다. 제9~10대에는 중선거구제와 유통회제도가, 제11~12대에는 중선거구에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형태였다. 이후 제13대부터는 소선거구방식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1989년 군포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군포 지역을 포괄했던 시흥군의 역대 국

회의원선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제1~13대 국회의원선거 현황

시기	선거구	후보인수	당선자	소속정당
제1대(1948)	제10선거구(시흥군)	4인	이재형	무소속
제2대(1950)	제20선거구(시흥군)	5인	이재형	국민당
제3대(1954)	제19선거구(시흥군)	3인	이영섭	자유당
제4대(1958)	제19선거구(시흥군)	4인	이재형	자유당
제5대(1960)	제20선거구(시흥군)	6인	이재형	무소속
제6대(1963)	제13지역구(시흥·부천·옹진군)	9인	옥조남	민주공화당
제7대(1967)	제13지역구(시흥·부천·옹진군)	6인	오학진	민주공화당
제8대(1971)	제15지역구(시흥군)	3인	이택돈	신민당
제9대(1973)	제6선거구(시흥·부천·옹진군)	5인	오학진	민주공화당
			이택돈	신민당
제10대(1978)	제6선거구(시흥·안양·부천·옹진군)	5인	윤국로	민주공화당
			이택돈	신민당
제11대(1981)	제6선거구(시흥·안양·부천·옹진군)	5인	윤국로	민주정의당
			이석용	민주한국당
제12대(1985)	제4선거구(시흥·안양·광명·옹진군)	6인	이택돈	신한민주당
			윤국로	민주정의당
제13대(1988)	과천시·시흥군 선거구	4인	황철수	민주정의당

군포시 출범 이후 치러진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는 1992년 제14대 선거였다. 이에 앞서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였다. 1991년에는 신한민주당과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합당하였고, 1992년에는 통일국민당이 창당하였다.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율 7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민자당 38.5%, 민주당 29.2%, 통일국민당 17.3%를 득표하였고, 총 299석 중 민자당 149석, 민주당 97석, 국민당 31석, 신정당 1석, 무소속 21석을 차지하였다. 시흥시와 통합선거구로 실시된 이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제정구 후보가 민자당의 황철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표 5〉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별 득표수

(단위: 명, 표)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민주 자유당	민주당	통일 국민당	신정당	민중당	무소속	무소속		
				황철수	제정구	장학수	이강원	박재영	김종호	서정성		
부재자	1,188	1,163	1,125	471	276	85	57	72	36	128	38	25
합계	70,703	48,741	48,298	14,167	21,314	6,037	940	1,442	449	3,949	443	21,962

출처: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1996년 치러졌다. 이에 앞서 1995년 2월 김종필을 대표로 하는 자유민주연합이 창당되었고, 그해 9월에는 김대중을 대표로 하는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되었다. 당시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자유당은 12월에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하였다. 1996년 4월 11일 63.9%라는 낮은 투표율 속에 진행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한국당이 34.5%를 득표하여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는 25.3%를 득표하였다. 군포시에서는 후보자 6명이 출마하여 새정치국민회의의 유선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 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별 득표수

(단위: 명, 표)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신한국당	새정치 국민회의	통합 민주당	자유민주 연합	무당파 국민연합	무소속		
				강창웅	유선호	여익구	심양섭	박기수	정창록		
합계	161,710	101,215	99,918	30,123	31,869	13,018	21,223	414	3,271	1,297	60,495

출처: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1997년 12월 제1야당이던 신한국당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지지율 하락의 돌파구 마련과 대통

령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변경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도 2000년 1월 당명을 새천년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총선은 21세기 첫 국회의원선거라는 의미와 함께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선거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되었다. 57.2%의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낸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38.96%, 새천년민주당은 35.87%를 차지하였다. 군포시는 전국 투표율보다 낮은 56.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한나라당의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 유선호 후보에게 260표 차로 앞서 당선되었다.

〈표 7〉 제16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별 득표수

(단위: 명, 표)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계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김부겸	유선호	김영재	이강원		
부재자	3,636	3,364	3,239	1,056	1,623	434	126	125	272
합계	181,552	102,646	101,713	46,330	46,070	7,324	1,989	933	78,906

출처: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2004년 4월 15일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실시된 총선거는 정치 신인이 무려 60% 이상 등장하는 가 하면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세력이 제도권 정치로 진입하고 여성 정치인의 의회 진출이 확대되는 등 정치적 변화가 나타났다. 선거 결과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당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보다 2석이 많은 152석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되었고, 한나라당은 121석을 획득하였다. 군포시의 투표율은 64.7%로 열린우리당의 김부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표 8〉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별 득표수

(단위: 명, 표)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계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유영하	김선문	김부겸	송재영		
부재자	4,690	4,322	4,182	1,204	267	2,263	448	140	368
잘못 투입된 투표지	0	107	107	44	9	47	7	0	-107
합계	192,874	124,725	123,924	44,609	7,492	61,419	10,404	801	68,149

출처: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은 굿은 날씨와 유권자층의 정치적 무관심 등으로 역대 전국 동시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인 46.1%를 나타냈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은 51.2%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53석을 차지하였고, 통합민주당은 27.1%로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홍보탑

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이 25석을 차지하였다. 군포시는 11개 동 56개 투표구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48.1%의 투표율을 나타내 전국 투표율과 경기도의 43.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선거 결과 통합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한나라당 유영하 후보를 제치고 3선 의원이 되었다.

〈표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별 득표수

(단위: 명, 표)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김부겸	유영하			김현준
합계	204,940	98,550	97,665	49,638	45,999	2,028	885	106,390

출처: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3. 지방선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임명제로 하고 시·읍·면장을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기로 한 이 법령은 같은 해 12월 개정을 통해 의회구성 때까지 시·읍·면장도 임명제로 하기로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지방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지방자치 선거가 1952년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로 시행되어, 1956년과 1960년에 걸쳐 세 차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9년 1개월 동안 시행된 지방자치는 1960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세력으로 기능하는 데 불과하였다.

지방자치제도는 5·16쿠데타로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 부활되었다. 1988년 3월 법률 제 400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이다. 1990년 초 3당 합당에 따른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이 지방선거를 일방적으로 연기시키자 이에 반발한 야당의 강력한 투쟁 끝에, 1991년 비로소 기초자치단체의원과 광역의원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지방자치관련법 규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외형적이거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포시 개표 광경(1995년 6월 27일)

15명,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기초의회의원 4,645명, 광역의회의원 866명을 선출했다.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8년 제2회, 2002년 제3회, 2006년 제4회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기초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시흥군 남면에 해당하는 군포지역에서는 모두 11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면의원에 당선된 양재호는 의원들의 간접선거에 따라 면장에 선출되었다. 남면의원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표 10〉 1952년 시흥군 남면의회의원 선거 현황

구분	이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소속정당
의장	채규룡	38	남면 당리	의사	중학교 졸업 경기도의학강습소 수료	의사 12년	무소속
부의장	이재원	30	남면 산본리	농업	소학교 졸업	이장	무소속
의원	양재호	35	남면 당정리	농업	경성남대문고등학교 졸업	산업위원장	무소속
	변재성	47	남면 부곡리	농업	보통학교 졸업		무소속
	박승만	38	남면 당리	약종상	경성보성고등보통학교 졸업		무소속
	김순흥	44	남면 금정리	농업	보통학교 졸업		무소속
	이재성	59	남면 당리	농업	한문 수학	자유당고문, 이장, 면의회 내무위원장, 국민회 부지부장, 농민회 부회장	자유당
	조옥동	43	남면 금정리	농업	보통학교 졸업	징계자격위원장	-
	김석준	34	남면 산본리	상업	소학교 졸업		무소속
	김동성	45	남면 당리	농업	보통학교 졸업		무소속
	문종화	51	남면 부곡리	농업	보통학교 졸업	이장	무소속

출처 : 경기도의회사편찬위원회, 1997, 『경기도의회사』, 661쪽.

제2대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8일 실시되었다. 같은 해 5월 15일 온갖 부정으로 점철된 정·부통령 선거에 이어 치러진 이 선거에서 자유당이 67.4%의 압도적인 당선율을 기록한 반면 무소속은 28.6%로 감소해, 자유당과 무소속의 의석 점유율이 제1대 선거와 전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당시 군포지역인 시흥군 남면에서는 모두 11명이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같은 날 실시된 시·읍·면장 선거에서 남면 면장에 양재호가 선출되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당은 7·29총선에서 3분의 2를 넘는 199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를 전후로 하여 12일에

〈표 11〉 1956년 남면의회의원 선거 현황

이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소속정당
박승문	49	상업	한문 수학	구장	자유당
문진용	34	농업	소학교 졸	면서기	국민회
양재석	40	농업	소학교 졸	면의원	무소속
백종룡	56	농업	중학교 졸	해군 대위	자유당
정경재	31	농업	중학교 졸	-	자유당
김종환	59	농업	한문 수학	구장	자유당
이재성	64	농업	한문 수학	면의원	자유당
채규룡	43	의사	중학교 졸	면의원	무소속
이재원	35	농업	소학교 졸	면의원	무소속
김석준	39	상업	소학교 졸	면의원	무소속
조옥동	48	농업	소학교 졸	면의원	민주당

출처 : 경기도의회사편찬위원회, 『경기도의회사』, 1997년, 812~813쪽.



시흥군 남면의회 사무실¹⁾

는 서울특별시·도의회의원 선거, 26일 시·읍·면장 선거, 29일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가 차례로 실시되었다. 자유당정권의 붕괴 이후 성립한 장면내각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읍·면의 자치화와 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는 불과 5개월 만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산됨으로써, 제대로 지방자치를 실현해 보지도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1949년 7월 법률 제325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52년, 1956년, 1960년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이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이후 199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1991년 3월 26일 전국에서 4,304명을 뽑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군포시는 6개 선거구에서 모두 21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9명을 선출하였으며,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인 55%보다 낮은 48.0%였다.

1) 시흥시청(<http://www.sheung.go.kr>) '시흥소개'.

〈표 12〉 제1대 기초의원 선거 결과

(단위: 명, 표, %)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후보자수	당선자(득표수)	
		계	유효투표	무효투표					
군포1동	16,809	7,427	7,278	149	9,382	44.2	4	류지연(3,079)	백남규(2,156)
군포2동	7,059	3,891	3,823	68	3,168	55.1	3	김경환(1,920)	
당정동	3,947	2,158	2,072	86	1,789	54.7	2	이세중(1,043)	
산본1동	14,278	7,390	7,265	125	6,888	51.8	5	이재권(2,525)	배연자(1,862)
산본2동	5,879	2,822	2,763	59	3,057	48.0	3	김치년(1,153)	
금정동	19,798	8,824	8,667	157	10,974	44.6	4	노재영(2,575)	송윤석(2,460)
계	67,770	32,512	31,868	644	35,258	48.0	21	9	

출처: 군포시, 1999, 『군포시사』, 313쪽.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된 군포시 기초의원 선거는 모두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1994년 12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야동이 군포시에 편입되고, 군포시의 급속한 인구팽창으로 제2대 기초의원 정수는 20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투표율 68.4% 대비 63.2%의 투표율을 나타낸 군포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43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군포1동 권원혁·박윤호, 군포2동 석무훈, 당정동 이세중, 산본1동 이재권, 산본2동 이원남·임용순, 금정동 최진학·박윤서, 재궁동 노재영·김영숙, 오금동 손영선·김제길, 수리동 방상익·장후동, 광정동 김주삼·김진용, 대야동 송만용 후보가 각각 당선하였고, 궁내동에서는 유삼중·권순태 후보가 무투표 당선하였다. 선거구별 선거인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3〉 제2대 기초의원 선거 결과

(단위: 명, 표)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계	권원혁	박윤호	김영복	심재국	한태희	류근용		
군포1동	16,487	10,024	계	권원혁	박윤호	김영복	심재국	한태희	류근용	337	6,463
			9,687	2,260	2,259	1,768	1,015	1,219	1,166		
군포2동	8,317	5,550	계	이재수	석무훈	김익환				151	2,767
			5,399	1,754	2,155	1,490					
당정동	2,715	1,697	계	이세중	고석현					67	1,018
			1,630	1,047	583						
산본1동	13,255	8,219	계	이재권	배연자	이규희				183	5,036
			8,036	3,147	3,099	1,790					
산본2동	14,820	9,637	계	이원남	김정원	임용순	양명세	김치년		246	5,183
			9,391	2,808	1,608	2,043	1,190	1,742			
금정동	13,884	8,020	계	최진학	이환봉	박윤서	김갑철			214	5,864
			7,806	2,515	1,369	1,969	1,953				
재궁동	18,447	11,083	계	김영숙	송윤석	강송구	노재영	조만형		261	7,364
			10,822	2,391	2,359	1,904	2,582	1,586			
오금동	16,433	11,114	계	김제길	손영선	김정환				212	5,319
			10,902	3,581	3,934	3,387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계	장후동	윤주만	장종선	방상익				
수리동	13,069	9,004	계							213	4,065
			8,791	3,145	1,599	700	3,347				
광정동	15,890	9,741	계	김진용	김주삼	엄장길				298	6,149
			9,443	3,040	4,837	1,566					
대야동	3,054	2,178	계	송만용	김현중	정준수				56	876
			2,122	866	543	713					
궁내동	무투표 당선		계	유삼중	권순태						

출처 : 군포시, 1999, 『군포시사』, 316쪽;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3대 군포시 기초의원 선거는 모두 1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어 의원정수 11명을 선출하였다. 총유권자 17만 5,931명 가운데 8만 7,691명이 투표에

〈표 14〉 제3대 기초의원 선거 결과

(단위 : 명, 표)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계	권원혁	박윤호			
군포1동 · 당정동	18,472	8,163	계	권원혁	박윤호		230	10,309
			7,933	4,176	3,757			
군포2동	14,026	7,221	계	김정진	이재수	석무훈	167	6,805
			7,054	1,519	3,754	1,781		
산본1동	17,377	8,011	계	장경민	김갑철		221	9,366
			7,790	3,882	3,908			
산본2동	19,352	9,835	계	이문섭	김정원	김규석	325	9,517
			9,510	4,793	3,004	1,713		
금정동	13,351	5,775	계	최진학	이환봉		149	7,576
			5,626	3,047	2,579			
재궁동	18,553	9,090	계	김영숙	허 유	노재영	192	9,463
			8,898	3,985	1,867	3,046		
오금동	19,491	10,417	계	김제길	손영선		244	9,074
			10,173	5,360	4,813			
수리동	16,116	8,783	계	장후동	김판수	송재영	186	7,333
			8,597	2,696	2,751	3,150		
궁내동	16,501	8,791	계	유삼중	김기홍	이경환	196	7,710
			8,595	2,702	2,671	3,222		
광정동	19,043	9,682	계	김진용	엄장길	조완기	348	9,361
			9,334	3,758	2,623	2,953		
대야동	3,649	1,927	계	유희열	송만용		40	1,722
			1,887	685	1,202			

출처 :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참여하여 49.8%의 투표율을 나타내 전국 투표율을 52.7%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28명의 후보가 경합한 가운데 군포1동·당정동 선거구에서는 권원혁, 군포2동 이재수, 산본1동 김갑철, 산본2동 이문섭, 금정동 최진학, 재궁동 김영숙, 오금동 김제길, 수리동 송재영, 궁내동 이경환, 광정동 김진용, 대야동 송만용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된 제4대 군포시 기초의원 선거는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전체 유권자 18만 6,262명 가운데 8만 7,70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47.2%로 전국 48.9%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모두 2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결과 군포1동 권원혁, 군포2동·대야동 이재수, 산본1동 송정열, 산본2동 김재일, 금정동 최진학, 재궁동 김진호, 오금동 김제길, 수리동 김판수, 궁내동 이경환, 광정동 조완기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 15〉 제4대 기초의원 선거 결과

(단위: 명, 표)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계	권원혁	강용순	권오근			
군포1동	18,851	6,984	계	권원혁	강용순	권오근	192	11,867	
			6,792	3,361	1,851	1,580			
군포2동· 대야동	23,318	11,094	계	이재수	김정진	서정오	254	12,224	
			10,840	5,787	3,356	1,697			
산본1동	17,905	7,205	계	송정열	김갑철		208	10,700	
			6,997	3,828	3,169				
산본2동	19,629	9,812	계	김재일	이문섭		302	9,817	
			9,510	5,763	3,747				
금정동	15,256	5,759	계	이환봉	최진학		140	9,497	
			5,619	2,708	2,911				
재궁동	18,679	8,188	계	김진호	손영선	성열호	250	10,491	
			7,938	4,057	2,716	1,165			
오금동	19,563	10,351	계	김제길	박동철		281	9,212	
			10,070	5,498	4,572				
수리동	16,166	8,666	계	송재영	김판수		175	7,500	
			8,491	4,169	4,322				
궁내동	16,351	8,865	계	김정혜	이경환		185	7,486	
			8,680	2,843	5,837				
광정동	20,544	10,782	계	조완기	김진용	조금숙	한문교	291	9,762
			10,491	4,211	1,603	2,473	2,204		

출처: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5대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과 중선거구제 도입 등 큰 폭으로 개정된 「지방선거관리법」에 따라 치러졌다.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의원이 유급화되어 그동안 회기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고 지급액도 크

게 늘어났다. 다음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고, 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당에서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정당추천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군포시에서는 9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8명은 4개 선거구에서 득표순에 따라 2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정당 투표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게 되었다.

군포 1동과 2동, 대야동을 선거구역으로 하는 가선거구에서는 4명의 후보가 선전하여 열린우리당 김동별 후보와 한나라당 양재숙 후보가 당선되었다. 5명의 후보가 등록한 나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한우근 후보, 한나라당 송백중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8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다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문섭 후보, 한나라당 이경환 후보가 기초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군포시의회 의원 3명이 후보로 나선 라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판수 후보와 한나라당 김제길 후보가 재당선되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경자 후보와 한나라당 정명원·오미자 후보가 경합을 벌인 비례대표 의원에는 한나라당 정명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각 선거구별 기초의원 후보와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제5대 기초의원 선거 결과

선거구	선거구역	기호	성명	소속정당	성별	연령	직업	비고
군포시 가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1	김동별	열린우리당	남	41	정당인	당선
		2	양재숙	한나라당	여	55	중소기업인	당선
		3	권원혁	민주당	남	57	군포시의회 의원	
		5	이덕현	국민중심당	남	49	사회활동가	
군포시 나	산본1동 금정동	1	한우근	열린우리당	남	46	국회의원(김부겸) 보좌관	당선
		2	송백중	한나라당	남	57	정당인	당선
		3	신정규	민주당	남	31	민주당군포시위원회 사무국장	
		6	윤옥경	무소속	여	47	풀뿌리정치연대 사무국장	
		7	장경민	무소속	남	47	건축업	
군포시 다	산본2동 공내동 광정동	1	이문섭	열린우리당	남	47	자영업	당선
		2-가	이경환	한나라당	남	43	군포시의회 의원	당선
		2-나	홍용표	한나라당	여	55	주부	
		3	강봉석	민주당	남	43	교육활동가	
		4	조금숙	민주노동당	여	48	녹색자치경기연대 공동대표	
		5	윤태호	국민중심당	남	54	(주)중앙물류 대표이사	
		6	강신웅	무소속	남	43	작곡가	
7	이일남	무소속	여	45	자원활동가			
군포시 라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1	김판수	열린우리당	남	49	군포시의회 의원	당선
		2	김제길	한나라당	남	53	군포시의회 의장	당선
		4	김진호	민주노동당	남	40	군포시의회 의원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총합』, 934~935쪽.

2) 기초단체장 선거

5·16군사쿠테타로 중단되었던 기초단체장 선거가 34년 만에 부활되어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선거로 군포시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에는 민자당의 유병직 후보를 비롯하여 민주당 조원극 후보, 자민련 이강원 후보, 무소속의 김영재·백남규·이철두 후보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12개 투표구에서 유권자 15만 1,165명 중 9만 5,53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3.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 조원극 후보가 군포시장에 당선되었다.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수와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제1회 군포시장 선거 결과

(단위: 명, 표)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유병직	조원극	이강원	김영재	백남규	이철두		
합계	151,165	95,538	93,946	23,754	28,274	7,548	16,124	6,055	12,191	1,592	55,627
부재자	3,029	2,815	2,631	753	827	188	317	247	299	184	214
군포1	16,166	9,711	9,501	3,029	2,666	809	402	1,516	1,079	210	6,455
군포2	8,138	5,380	5,276	1,930	1,656	414	172	565	539	104	2,758
당정	2,652	1,636	1,589	855	357	73	36	187	81	47	1,016
산본1	12,996	7,968	7,826	1,606	2,447	826	416	431	2,100	142	5,028
산본2	14,533	9,361	9,232	2,107	2,966	810	1,407	440	1,502	129	5,172
금정	13,639	7,783	7,667	1,913	2,698	825	423	559	1,249	116	5,856
재궁	18,109	10,763	10,592	2,806	3,426	954	1,329	655	1,422	171	7,346
오금	15,940	10,637	10,533	2,495	3,512	974	1,816	469	1,267	104	5,303
수리	12,826	8,775	8,669	1,577	2,265	403	3,616	276	532	106	4,051
궁내	14,528	9,053	8,970	1,693	1,985	479	3,906	245	662	83	5,475
광정	15,606	9,467	9,332	2,210	2,726	610	2,195	365	1,226	135	6,139
대야	3,003	2,121	2,061	759	729	174	76	99	224	60	882
잘못 투입된 투표지	0	68	67	21	14	9	13	1	9	1	-68

출처 :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1998년 6월 4일 제2회 동시선거로 실시된 군포시장 선거에는 총유권자 17만 5,931명 중 8만 7,67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49.8%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에는 현 시장인 한나라당 조원극 후보를 비롯하여 국민회의 김윤주 후보, 국민신당 백일산 후보, 무소속의 심양섭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3만 3,659표를 획득한 김윤주 후보가 군포시장에 당선되었다.

〈표 18〉 제2회 군포시장 선거 결과

(단위: 명, 표)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무소속		
				조원국	김윤주	백일산	심양섭		
합계	175,931	87,674	85,627	29,611	33,659	3,642	18,715	2,047	88,257
부재자	3,416	3,136	2,988	982	996	228	782	148	280
군포1	16,081	6,920	6,684	2,557	2,678	221	1,228	236	9,161
군포2	16,081	6,920	6,684	2,557	2,678	221	1,228	236	9,161
당정	2,050	922	885	413	333	37	102	37	1,128
산본1	16,997	7,655	7,447	2,466	3,184	250	1,547	208	9,342
산본2	18,943	9,462	9,270	3,152	3,448	329	2,341	192	9,481
금정	13,077	5,512	5,343	1,905	2,417	177	844	169	7,565
재궁	18,221	8,789	8,640	3,154	3,343	507	1,636	149	9,432
오금	19,077	10,046	9,828	3,577	3,995	455	1,801	218	9,031
수리	15,871	8,550	8,365	1,956	3,589	445	2,375	185	7,321
궁내	16,190	8,505	8,386	2,479	3,055	351	2,501	119	7,685
광정	18,686	9,358	9,206	3,442	3,313	346	2,105	152	9,328
대야	3,581	1,853	1,782	798	619	62	303	71	1,728
잘못 투입된 투표지	0	1	1	0	1	0	0	0	-1

출처: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표 19〉 제3회 군포시장 선거 결과

(단위: 명, 표)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조원국	김윤주	김영재	유희열	조용민		
합계	186,262	87,653	86,795	34,006	42,457	6,680	2,746	906	858	98,609
부재자	3,824	3,519	3,392	1,019	1,851	146	270	106	127	305
군포1	18,479	6,632	6,551	2,928	2,905	414	225	79	81	11,847
군포2	18,989	8,743	8,683	4,007	3,983	385	211	97	60	10,246
산본1	17,575	6,906	6,833	2,537	3,499	518	187	92	73	10,669
산본2	19,186	9,403	9,324	3,653	4,747	633	209	82	79	9,783
금정	14,913	5,432	5,367	2,099	2,666	348	186	68	65	9,481
재궁	18,305	7,845	7,777	2,956	3,659	947	154	61	68	10,460
오금	19,128	9,963	9,909	3,475	5,027	1,136	191	80	54	9,165
수리	15,887	8,402	8,326	2,774	4,395	746	325	86	76	7,485
궁내	16,013	8,540	8,487	3,624	3,970	644	187	62	53	7,473
광정	20,146	10,410	10,313	4,248	5,094	697	202	72	97	9,736
대야	3,817	1,855	1,830	684	660	66	399	21	25	1,962
잘못 투입된 투표지	0	3	3	2	1	0	0	0	0	-3

출처: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2002년 6월 13일 제3회 동시선거로 실시된 군포시장 선거에는 한나라당 조원극 후보, 민주당 김윤주 후보, 자민련 김영재 후보, 무소속의 유희열·조용민 후보 등 모두 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현 시장인 김윤주 후보와 전임시장이던 조원극 후보의 대결 양상을 띤 이 선거에서는 총 유권자 18만 6,262명 중 47.1%에 해당하는 8만 7,65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4만 2,457표를 얻은 김윤주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동시선거로 실시된 군포시장 선거에는 현 시장인 김윤주 열린우리당 후보를 비롯하여 한나라당 노재영 후보, 민주당 임채영 후보, 민주노동당 송재영 후보, 국민중심당 이종근 후보, 무소속의 조용민 후보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결과는 전국적인 한나라당의 우세 속에 군포에서도 한나라당 노재영 후보가 48.8%를 득표하여 34.6%를 획득한 열린우리당 김윤주 후보를 제치고 군포시장에 당선되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수여식(2006년 6월 2일)

〈표 20〉 제4회 군포시장 선거 입후보자 현황

기호	성명	소속정당	성별	연령	직업	경력	비고
1	김윤주	열린우리당	남	57	군포시장	군포시장(민선 2~3기) (전)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2	노재영	한나라당	남	55	정당인	(전)군포시의회 의장(2대) (전)경기도의회 의원(보사환경위원장)	당선
3	임채영	민주당	남	48	(주)대림개발 이사	(전)명지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4	송재영	민주노동당	남	45	정당인	(전)3대 군포시의회 의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5	이종근	국민중심당	남	48	이종근경영지도사 사무소 대표	(전)생활정보신문 '큰거리장' 편집 겸 발행인 (전)군포북합화물터미널확장반대범시민대책위 상임대표	
6	조용민	무소속	남	41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	(전)군포시청 근무(1990~1998) (전)군포시장 선거 입후보(무소속, 200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총람』, 514~515쪽.

〈표 21〉 제4회 군포시장 선거 결과

(단위 : 명, 표)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무소속		
				김윤주	노재영	임채영	송재영	이종근	조용민		
합계	203,276	103,830	103,063	35,903	50,696	6,108	8,607	905	844		
부재자	4,580	4,206	4,127	2,065	1,380	232	288	56	106	79	374
군포1	24,826	10,808	10,717	3,311	5,739	773	679	121	94	91	14,018
군포2	26,895	13,908	13,815	4,953	6,945	815	871	131	100	93	12,987
산본1	17,863	7,782	7,696	2,653	3,755	555	549	102	82	86	10,081
산본2	18,603	10,080	10,019	3,175	5,195	637	854	85	73	61	8,523
금정	15,986	6,355	6,294	2,041	3,232	467	409	81	64	61	9,631
재궁	18,801	8,917	8,858	3,139	4,291	525	755	91	57	59	9,884
오금	19,235	10,470	10,418	4,043	4,657	518	1,065	62	73	52	8,765
수리	15,748	8,662	8,598	3,189	3,707	390	1,218	44	50	64	7,086
궁내	16,131	9,255	9,209	2,974	4,936	397	794	47	61	46	6,876
광정	20,684	11,366	11,309	3,698	5,842	663	977	63	66	57	9,318
대야	3,924	2,021	2,003	662	1,017	136	148	22	18	18	1,903

출처 :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3) 광역의회의원 선거

초대 도의원 선거는 1952년 5월 10일 실시되었으나 경기도는 서울특별시, 강원도와 함께 접전 지역이라는 군사적인 이유로 연기되었다가 1956년 8월 13일 45개 선거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 하였다. 경기도로서는 제1대 도의원 선거였지만 전국적으로는 제2대 도의원 선거였다. 시흥은 2개

선거구에서 모두 7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제1선거구 자유당 김홍규(38세, 안양읍 안양리)와 제2선거구 자유당 류지연(50세, 수암면 목감리)이 각각 당선되었다.

1960년 12월 12일 전국적으로는 제3대, 경기도로는 제2대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시흥군에서는 제1선거구에 김홍규(민주당), 조남찬(무소속), 이정립(신민당) 후보와 제2선거구에서 장경순(무소속), 이범수(무소속), 권형(무소속), 김인수(민주당), 채충현(무소속), 김주승(무소속) 후보가 접전하여 제1선거구에서 조남찬, 제2선거구에서 김주승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대 시·도 광역의원 선거는 30여 년간의 지방자치 공백을 거쳐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되었다. 전국 투표율 59%로 치러진 이 선거는 정당추천제로 실시되어 전국 의원 정수 866명 중 65%인 564명을 민자당이 차지했다. 신민당 121명, 민주당 21명, 민중당 1명이었고, 무소속이 선전하여 115명이 당선되었다. 3개 선거구에서 도의원 3명을 선출한 군포시의 광역의원 선거 투표율은 58.7%였다. 제1선거구에서는 민자당 유정남 후보, 제2선거구에서는 신민당 이재용 후보, 제3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임정순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제2대 광역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정당공천제로 시행된 이 선거에서 여당인 민자당은 전체 의원 정수 875명 중 32.7%에 해당하는 286명이, 제야당인 민주당은 40.2%인 352명이 당선되었다. 군포시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8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63.2%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선거구별 선거구역은 제1선거구 군포 1동, 군포 2동, 대야동, 당정동, 제2선거구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광정동, 제3선거구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이었다.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한기태,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조치영, 제3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백일산 후보 등 3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3대 광역의회 선거는 1998년 6월 4일 실시되었으며, 국회의원선거구마다 2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군포시에서는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을 선거구역으로 하는 제1선거구와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을 선거구역으로 하는 제2선거구에서 모두 5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국민회의의 한기태, 김주삼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투표율은 49.8%로 경기도 평균인 50.0%와 같았다.

제4대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선거구는 2개로 제1선거구는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등 5개 동을 포괄하고, 제2선거구는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등 6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모두 6명의 후보가 경합한 결과 제1선거구에서 한나라당 노제영 후보, 제2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하수진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 22〉 제1~4대 광역의회의원 선거 결과

(단위 : 명, 표, %)

구분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후보자수	당선자 (득표수)	소속정당
			계	유효투표	무효투표					
제1대	계	67,983	39,927	39,409	518	28,056	58.7	14	3	
	제1선거구	23,557	13,369	13,171	198	10,188	56.8	3	유정남(5,363)	민자당
	제2선거구	24,042	13,771	13,602	169	10,271	57.3	4	이재용(5,062)	신민당
	제3선거구	20,384	12,787	12,636	151	7,597	62.1	7	임정순(2,904)	무소속
제2대	계	151,165	95,583	92,955	2,628	55,582	63.2	8	3	
	제1선거구	30,573	19,455	18,772	683	11,118	63.6	2	한기태(9,421)	민주당
	제2선거구	57,849	35,617	34,543	1,074	22,232	61.6	2	조치영(20,715)	민주당
	제3선거구	62,743	40,511	39,640	871	22,232	64.6	4	백일산(16,421)	민주당
제3대	계	175,931	87,700	85,923	1,777	88,231	49.8	5	2	
	제1선거구	66,875	31,098	30,407	691	35,777	46.5	2	한기태(16,692)	국민회의
	제2선거구	109,056	56,602	55,516	1,086	52,454	51.9	3	김주삼(27,165)	국민회의
제4대	계	186,262	87,692	86,020	1,672	98,570	47.1	6	2	
	제1선거구	75,330	31,046	30,313	733	44,284	41.2	2	노재영(16,752)	한나라당
	제2선거구	110,932	56,646	55,707	939	54,286	51.1	4	하수진(26,138)	한나라당

출처 : 군포시, 1999, 「군포시사」, 313·315쪽;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제5대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2006년 5월 31일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군포시에서는 2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2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였다. 제1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재수, 한나라당 임기석, 민주당 송용순 후보가 출마하여 임기석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하수진, 한나라당 최진학, 민주당 유재준, 민주노동당 이태우 등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결과 최진학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 23〉 제5대 광역의회의원 선거 결과

선거구	기호	성명	소속정당	성별	연령	직업	비고
제1선거구	1	이재수	열린우리당	남	47	정당인	
	2	임기석	한나라당	남	43	정당인	당선
	3	송용순	민주당	여	48	정당인	
제2선거구	1	하수진	열린우리당	남	36	경기도의회 의원	
	2	최진학	한나라당	남	49	정당인	당선
	3	유재준	민주당	남	56	통일전자 대표	
	4	이태우	민주노동당	남	33	회사원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총람」, 617쪽.

4) 광역단체장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는 1960년 12월 29일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다시 부활되었다. 제1회 광역단체장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4대 동시선거로 실시되었다. 제1회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민자당 이인제 후보, 민주당 장경우 후보, 자민련 김문원 후보, 무소속 임사빈 후보가 출마하였다. 군포시에서는 유권자 15만 1,165명 중 9만 5,54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3.2%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 결과 제1회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민자당 이인제 후보가 4만 1,246표를 획득하였고, 민주당 장경우 후보는 3만 261표를 득표했다.

〈표 24〉 제1회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

(단위: 명, 표)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이인제	장경우	김문원	임사빈		
합계	151,165	95,544	94,055	41,246	30,261	8,260	14,288	1,489	55,621
부재자	3,029	2,815	2,636	1,256	724	174	482	179	214
군포1	16,166	9,711	9,521	4,159	2,972	905	1,485	190	6,455
군포2	8,138	5,380	5,287	2,457	1,538	415	877	93	2,758
당정	2,652	1,634	1,589	864	450	71	204	45	1,018
산본1	12,996	7,963	7,830	3,469	2,661	620	1,080	133	5,033
산본2	14,533	9,355	9,240	4,126	2,969	778	1,367	115	5,178
금정	13,639	7,778	7,672	3,097	2,716	741	1,118	106	5,861
재궁	18,109	10,761	10,603	4,578	3,415	1,008	1,602	158	7,348
오금	15,940	10,635	10,550	4,420	3,485	1,082	1,563	85	5,305
수리	12,826	8,770	8,664	3,552	3,039	704	1,369	106	4,056
궁내	14,528	9,050	8,961	3,979	2,689	789	1,504	89	5,478
광정	15,606	9,463	9,328	4,241	2,907	812	1,368	135	6,143
대야	3,003	2,122	2,071	1,001	667	150	253	51	881
잘못 투입된 투표지	0	107	103	47	29	11	16	4	-107

출처 :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io/>).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 국민회의 임창열 후보가 출마하였다. 군포시에서는 총유권자 17만 5,931명 가운데 8만 7,683명이 투표하여 49.8%의 투표율을 보였다. 군포시에서는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국민회의 임창열 후보가 4만 5,904표를 얻었고,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는 4만 709표를 획득했다.

〈표 25〉 제2회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

(단위: 명, 표)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한나라당	국민회의		
				손학규	임창열		
합계	175,931	87,683	86,613	40,709	45,904	1,070	88,248
부재자	3,416	3,136	2,989	1,539	1,450	147	280
군포1	16,081	6,920	6,809	2,919	3,890	111	9,161
군포2	13,741	6,964	6,888	3,117	3,771	76	6,777
당정	2,050	923	905	401	504	18	1,127
산본1	16,997	7,655	7,570	3,207	4,363	85	9,342
산본2	18,943	9,461	9,386	4,472	4,914	75	9,482
금정	13,077	5,512	5,435	2,234	3,201	77	7,565
재궁	18,221	8,788	8,684	4,054	4,630	104	9,433
오금	19,077	10,047	9,956	4,799	5,157	91	9,030
수리	15,871	8,549	8,463	4,002	4,461	86	7,322
궁내	16,190	8,505	8,455	4,443	4,012	50	7,685
광정	18,686	9,360	9,252	4,680	4,572	108	9,326
대야	3,581	1,862	1,820	842	978	42	1,719
잘못 투입된 투표지	0	1	1	0	1	0	-1

출처 :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총유권자 18만 6,262명 중 8만 7,62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47.0%의 투표율을 보였다. 군포시에서는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가 4만 8,706표를 획득하여 민주당의 진념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김준기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앞섰다.

〈표 26〉 제3회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

(단위: 명, 표)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손학규	진념	김준기		
합계	186,262	87,627	86,917	48,706	33,922	4,289	710	98,635
부재자	3,824	3,519	3,422	1,747	1,471	204	97	305
군포1	18,479	6,625	6,547	3,627	2,572	348	78	11,854
군포2	18,989	8,733	8,684	5,059	3,203	422	49	10,256
산본1	17,575	6,897	6,837	3,588	2,870	379	60	10,678
산본2	19,186	9,382	9,333	5,348	3,571	414	49	9,804
금정	14,913	5,430	5,370	2,796	2,290	284	60	9,483
재궁	18,305	7,851	7,789	4,235	3,158	396	62	10,454
오금	19,128	9,944	9,882	5,439	3,956	487	62	9,184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손학규	진념			김준기
수리	15,887	8,396	8,340	4,530	3,261	549	56	7,491
궁내	16,013	8,538	8,511	5,318	2,911	282	27	7,475
광정	20,146	10,403	10,319	5,950	3,949	420	84	9,743
대야	3,817	1,853	1,827	1,039	686	102	26	1,964
잘못 투입된 투표지	0	56	56	30	24	2	0	-56

출처 :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민주당 박정일 후보,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가 출마하였다. 선거 결과 경기도 전체 집계로 218만 1,677표를 획득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59.7%로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되었다.

〈표 27〉 제4회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

(단위 : 표, %)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대제	김문수	박정일	김용한
경기도	득표수	1,124,317	2,181,677	148,409	201,106
	득표율	30.8	59.7	4.1	5.5
군포시	득표수	36,202	57,058	4,155	5,548
	득표율	35.2	55.4	4.0	5.4

출처 :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

4. 기타 투표와 선거

1) 국민투표

1961년 5·16쿠데타에 성공한 군사정권은 1962년 7월 11일 헌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12월 1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전국 7,117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투표율 85%, 찬성률 79%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흥군은 선거인 6만 2,067명 중 5만 2,06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3.9%의 투표율을 나타냈

으며, 78%가 헌법개정에 찬성했다.

1969년 7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은 제1차에 한해 증임할 수 있다”는 헌법 제19조 규정으로 3선이 불가능하게 되자 “3선개헌 투표로 정부의 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민주공화당은 개헌을 국회에 제출하고, 9월 14일 새벽 2시에 정우회 소속 의원들과 개헌안 국민투표법안을 변칙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0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전국 8,471개 투표구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77.1%로 찬성 65.1%, 반대 31.3%였다. 시흥군은 투표율 76.1%, 찬성률 58.6%를 기록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국회를 대신한 비상국무회의에서는 10월 27일 대통령의 3권 통제, 임기 8년, 증임제한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다. 헌법개정안은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시흥군은 전체 선거인 10만 7,337명 중 89.8%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률 87.2%를 나타냈다.

유신헌법에 대한 재야단체와 야당, 언론계의 저항이 계속되자 정부는 긴급조치 1, 2, 3호를 발표하고 유신헌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공고하였다. 1975년 2월 12일 총선거인의 79.8%가 참여한 국민투표는 찬성 73.1%로 가결되었다. 현 군포지역에 해당하는 시흥군 남면에서는 선거인 9,485명 중 83.1%에 달하는 7,87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73.1%, 반대 25.1%, 무효 1.8%의 분포를 나타냈다.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정부 개헌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이 9월 28일 공포되었다. 대통령 7년 단임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국정자문회의 신설, 기존 정당과 국회 해산을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안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 총선거인 95.5%가 투표에 참여하여 91.6%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군포읍에서는 선거인 2만 1,699명 중 95.5%인 2만 71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95.4%, 반대 3.9%, 무효 0.7%로 헌법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6·10 민주항쟁 이후 1987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78.2%의 투표율 하에서 93.1%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군포읍의 투표율은 64.3%로, 전국은 물론 경기도의 81.4%에 크게 밀도는 수준이었으나 찬성률은 93.7%에 달했다.

2)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972년 12월 15일 간선제 대통령선거를 위한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시흥군의 대의원수는 13명으로, 현 군포 지역인 시흥군 남면에서는 류지연이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대의원들은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후보를 선출하였다.

〈표 28〉 제1~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단위: 명, 표)

선거구	시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별 득표수				무효	기권
				이관우		류지연			
남면	제1대	6,692	3,939	1,055		2,074		810	2,753
				김성곤	류지연	이관우	이준기		
	제2대	16,043	12,315	2,213	3,379	2,629	3,880	214	3,728

출처: 군포시, 1999, 『군포시사』, 306~307쪽.

초대 대의원 임기가 6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1978년 5월 18일 제2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당시 시흥군의 대의원수는 15명으로, 남면에서는 이준기와 류지연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다. 같은 해 7월 5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는 박정희 후보가 단일 입후보하여 7월 6일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79년 12월 6일에는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3)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된 1980년 10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산되고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대통령선거인단법」은 1981년 1월 24일 법률 제3355호로 제정 공포되어 1981년 2월 11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인의 78.1%가 참여한 이 선거에서 민정당 후보가 3,676명, 민한당 411명, 국민당 48명, 무소속 1,123명 등 5,278명이 선출되었다. 시흥군 군포읍에서 선출한 대의원은 김성곤(민정당), 권오선(민정당), 양영석(민정당), 이재권(국민당), 송봉석(민한당) 등 5명이었다. 대통령선거인단은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에 민주정의당 전두환 후보를 선출하였다.

제3장 시의회의 구성과 활동

이성학 |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1947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후,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제는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그 권한, 보조기관, 하급지방행정관청, 재정권에 관한 규정만이 시행되었을 뿐이다. 지방의회는 1952년 4월과 5월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구성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표 1〉 제1대 및 제2대 지방의회 군포 지역 면의회 의원

대	시흥군 남면	화성군 반월면 중 현 대야동 지역
제1대	채규룡(당리, 남면의회 의장), 이재원(산본리, 남면의회 부의장), 김동성(당리), 김순홍(금정리), 김석준(산본리), 문중화(부곡리), 박승만(당리), 변재성(부곡리), 양호석(당정리), 이재성(당리), 조옥동(금정리)	박용덕(둔대리), 심재길(둔대리), 정일수(속달리)
제2대	김석준, 김중환, 박승문, 백중용, 문진용, 양호석, 이재성, 이재원, 정경재, 조옥동, 채규룡	

출처 : 경기도의회, 1997, 『경기도의회사(초대~제2대)』, 부록 편.

비고 : 현 대야동 지역의 제2대 지방의회 의원 명단은 주소 미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1대(1952~1956년), 제2대(1956~1960년), 제3대(1960~1961년)로 이어 오던 지방의회는 1961년 5·16쿠데타로 해산되었고, 이로써 지방자치제도 중앙집권적 정부체제에서 관치 지방행정이라는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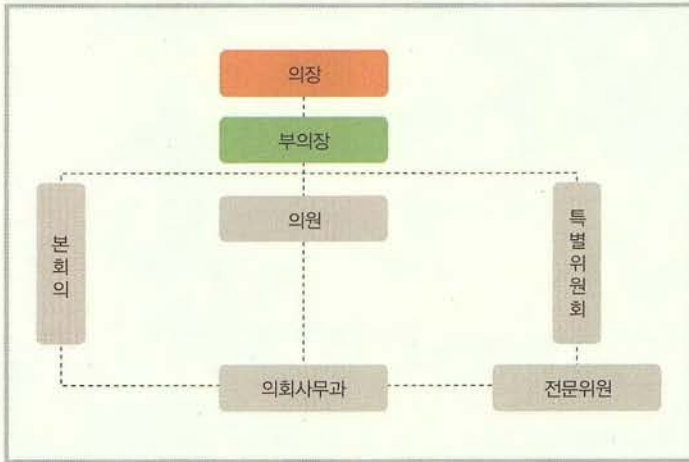
초대 군포시의회는 당동 733번지에 소재하던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다가 1993년 3월 30일에 군포시청 부지 내 현 위치에 청사를 완공하여 이전하고 그해 4월 15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이후 의원 정수가 증가하면서 청사 확장의 필요성이 생겼고, 1996년 5월 3일 현재와 같은 지상 3층 규모로 확장 준공되었다.

형태로 형식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1990년 12월 말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30년 만에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포시는 본래 1914년까지 과천군 남면에 속하다가 그해 3월 1일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시흥군에 이속되었다. 그리고 1979년 5월 1일에 군포읍으로 승격하기까지 시흥군 남면으로 존속하였다. 1989년 1월 1일에는 군포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군포시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군포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추고 주민 위주의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91년 4월 15일 초대 군포시의회가 출범하여 그 기능과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고, 2009년 6월 현재 제5대 시의회가 활동 중이다.

1.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초의회,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설치하는 광역의회로 나뉜다. 기초의회로서 군포시의회는 입법과 집행 기관에 대한 감독·통제 등의 기능을 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관계



시의회 구성도

법령에 의해 의결권을 비롯한 선거권, 행정감사권, 자율권, 청원수리권, 의견표명권 등의 권한을 지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결권은 기초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중요 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

리·처분, 중요 재산의 취득,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지방자치단체사무소 소재지의 변동 신설,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승인, 도시계획의 결정, 교육위원 선출 등이 의결권의 행사 대상이다.

행정감사권은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일반적·포괄적인 의미의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으로 나뉜다. 의원들은 필요시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발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율권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간여를 받지 않는 권한이다. 임시회의 소집·개회·휴회·폐회와 회기 결정, 회의 규칙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칙의 제정, 질서 유지,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등이 그것이다.

청원수리권은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하는 권한이다. 청원인이 청원을 제출하면,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로 의장이 검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며, 그 처리 결과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의회는 의견표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의견제시권이라고도 하며,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군포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과 본회의, 특별위원회 등으로 운영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며,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해당

〈표 2〉 역대 시의회 의장

대	제1기	제2기
1	류지연(1991. 4. 15.~1993. 4. 14.) 	류지연(1993. 4. 15.~1995. 6. 30.)
2	노재영(1995. 7. 11.~1997. 1. 6.) 	이재권(1997. 1. 7.~1998. 6. 30.) 
3	송만용(1998. 7. 7.~2000. 7. 6.) 	김진용(2000. 7. 7.~2002. 6. 30.) 
4	권원혁(2002. 7. 3.~2004. 7. 2.) 	이재수(2004. 7. 3.~2006. 6. 30.) 
5	김제길(2006. 7. 3.~2008. 7. 2.) 	이경환(2008. 7. 3.~2009. 6. 30. 현재) 

〈표 3〉 안건별 의원 발의 및 정족수

발의	안건	발의 정족수
의원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일반의안	재적의원 1/5 또는 의원 10명 이상 연서
	자격심사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징계요구	의장 위원장 의원 : 재적의원 1/5 이상 모욕당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예산안 수정안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반안 동의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4 이상 동의
	의안의 수정안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의사일정 변경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
	회의 비공개	의원 3명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청원	의원 1명 이상 소개
각종 동의	발의자와 찬성자 1명(구두, 서면 가능)	
위원회	각종 의안 제안 가능	
자치단체장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안	

위원회는 자연 소멸된다. 주로 조례안, 예산·결산, 의원 징계 및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이 밖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이 설치되어 있다.

정례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개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책임자가 시의회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 소집공고는 집회일 5일 전에 하며, 시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를 미리 공고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대 시의회의 구성과 의정활동¹⁾

1) 원 구성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의원 선거로 군포시 관내에서는 9명이 당선되었고,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장이 1991년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동년 4월 15일 개원식을 갖고 제1대 군포시의회가 출범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임기는 1991년 4월 15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였다.

1991년 제1회 임시회(4. 15~16.)는 제1대 시의원으로서 당선된 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제1대 제1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에 류지연(군포1동) 의원, 부의장에는 송윤석(금정동)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2기 의장단은 1993년의 제14회 임시회(4. 13.)에서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류지연 의원, 부의장에 이재권(산본1동) 의원을 선출하였다.

한편, 1994년 12월 26일에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거하여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의 둔대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속달리가 군포시 관할구역에 편

1) 군포시의회, 1993, 『군포의정』; 군포시의회, 1996, 『초대 군포시의회』 의정백서.

입되면서 화성군의회 반월면 지역 출신 의원 1명이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등록함으로써 1994년 12월 26일부터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5년 3월 29일 김경환(군포2동) 의원이 사직하고, 그해 6월 9일 백남규(군포1동) 의원이 사직함으로써 8명의 의원이 임기 만료일까지 활동하였다.²⁾ 본래 제1대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표 4〉 제1대 의회 원 구성 현황

직위	성명	지역구	임기시작일	임기만료일	비고
제1기 의 장	류지연	군포1동	1991. 4. 15.	1993. 4. 14.	
제1기 부의장	송윤석	금정동	1991. 4. 15.	1993. 4. 14.	
제2기 의 장	류지연	군포1동	1993. 4. 15.	1995. 6. 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임기 연장 (1995. 4. 14.~1995. 6. 30.)
제2기 부의장	이재권	산본1동	1993. 4. 15.	1995. 6. 30.	
의 원	류지연	군포1동	1991. 4. 15.	1995. 6. 30.	
	백남규	군포1동	"	1995. 6. 9.	
	김경환	군포2동	"	1995. 3. 29.	
	이세중	당정동	"	1995. 6. 30.	
	이재권	산본1동	"	"	
	배연자	산본1동	"	"	
	김치년	산본2동	"	"	
	송윤석	금정동	"	"	
	노재영	금정동	"	"	
김현중	대야동	"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의회에서 편입	

출처 : 군포시의회, 1999, 『제2대 군포시의회 제2기』 의정백서.

2) 의정활동

제1대 군포시의회는 총 35회기를 운영하였는데, 그중 정기회가 4회, 군포시장 요구에 의한 임시회가 25회, 의원 요구에 의한 임시회가 6회였다. 회기일수는 총 262일이었다. 그중 회의일수는 총 158일로 본회의 98일, 위원회 60일이었다.

제1대 군포시의회는 운영기간 동안 총 29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조례안 심의 166건, 예산·결산안 심의 37건, 동의 및 심의안 처리 25건, 건의·결의안 6건, 규칙·규정안 5건, 청원 2건, 기타 51건이었다. 조례안건의 경우, 전체 166건 중 164건(98.7%)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건(1.3%)은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2) 군포시의회, 1997, 『제2대 군포시의회 제1기』 의정백서, 47쪽.

〈표 5〉 제1대 의회 의안 처리 현황

연도	계	조례안	예산·결산안	동의(심의)안	건의·결의안	규칙·규정안	청원	기타
합계	292	166	37	25	6	5	2	51
1991	38	18	5	5	-	-	-	10
1992	71	45	10	6	-	-	-	10
1993	66	37	10	7	2	1	1	8
1994	87	44	10	5	4	3	1	20
1995	30	22	2	2	-	1	-	3

출처 : 군포시의회, 2002, 『의회10년사』; 군포시의회, 1996, 『초대 군포시의회』 의정백서.

(1) 1991년 의정활동

제5회 군포시의회 정례회(12. 2~30.)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 ‘군포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등 9건, 동의안 2건, 기타 5건 총 19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임시회는 총 4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2회 임시회(5. 29~31.)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회 임시회(7. 24~27.)에서는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과 ‘경기도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4회 임시회(11. 4~11.)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군포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 1992년 의정활동

제11회 정례회(11. 25~12. 24.)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19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 ‘군포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 등 7건, 기타 5건 등 총 20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임시회는 총 5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6회 임시회(3. 3~7.)에서는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소방재산) 무상대부결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7회 임시회(4. 27~28.)에서는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7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제8회 임시회(7.

14~18.)에서는 '19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과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결정안' 등 2건, 총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제9회 임시회(8. 26~31.)에서는 '군포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 과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감사위원선임안' 등을, 제10회 임시회(10. 28~11. 6.)에서는 '군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3) 1993년 의정활동

제21회 정례회(11. 25~12. 24.)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를 채택하고,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7건과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을 포함 총 2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임시회는 총 9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12회 임시회(1. 11.)에서는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13회 임시회(3. 9~13.)에서는 '군포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제15회 임시회(5. 25~6. 3.)에서는 조례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 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제16회 임시회(7. 13~19.)에서는 '19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군포시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 '산본신도시 건설상의 문제점 시정요구결 의안' 등을, 제17회 임시회(8. 31~9. 1.)에서는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안' 등을, 제18회 임시회(9. 29.)에서는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시설 건설계획동의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제19회 임시회(10. 18~19.)에서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20회 임시회(11. 16.)에서는 '군포시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4) 1994년 의정활동

제30회 정례회(11. 25~12. 29.)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를 채택하고,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5건, '군포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산본쓰레기소각시설 최저가낙찰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결의안' 을 포함 총 29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임시회는 총 8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22회 임시회(2. 17~18.)에서는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과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반대결의안' 등을, 제23회 임시회(4. 15~18.)에서는 '군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조례안', '군포시의회의 원윤리실천규정안', '당동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현실화건의안' 등을, 제24회 임시회(6. 10~24.)에서는 '19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군포시 직제신설건의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제25회 임시회(7. 11~18.)에서는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26회 임시회(9. 13~16.)에서는 '군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27회 임시회(9. 26~28.)에서는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보고 3건을 듣고 질의·답변하였다. 제28회 임시회(10. 15~20.)에서는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제29회 임시회(11. 19~21.)에서는 '군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관한 청원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5) 1995년 의정활동



제31회 임시회(1995. 2. 21.)

제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1995년에는 총 5회의 임시회만 운영되었다. 제31회 임시회(2. 21~25.)에서는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32회 임시회(3. 22~24.)에서는 '군포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군포·안양시간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3회 임시회(4. 14.)에서는 19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현재 재직 중인 시·군·구 의원의 임기가 19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기존 의장·부의장 임기를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의장·부의장 임기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어서 제34회 임시회(5. 15~22.)에서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5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 공유재산 계획변경동의안' 등을, 제35회 임시회(6. 9.)에서는 '군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안'과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3. 제2대 시의회의 구성과 의정활동³⁾

1) 원 구성

제2대 군포시의회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구의원)로 실시되어 동별 인구비례에 따라 2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대 의원은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3차 일부 개정안(법률 제4741호)의 부칙 제3조에 의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의 임기로 의정활동을 하였다.

〈표 6〉 제2대 의회 원 구성 현황

직위	성명	지역구	임기시작일	임기만료일
제1기 의 장	노재영	재궁동	1995. 7. 11.	1997. 1. 6.
제1기 부의장	이원남	산본2동	1995. 7. 11.	1997. 1. 6.
제2기 의 장	이재권	산본1동	1997. 1. 7.	1998. 6. 30.
제2기 부의장	김진용	광정동	1997. 1. 7.	1998. 6. 30.
의원	권원혁	군포1동	1995. 7. 1.	1998. 6. 30.
	박윤호	군포1동	"	"
	석무훈	군포2동	"	"
	이세중	당정동	"	"
	이재권	산본1동	"	"
	이원남	산본2동	"	"
	임용순	산본2동	"	"
	박윤서	금정동	"	"
	최진학	금정동	"	"
	김영숙	재궁동	"	"
	노재영	재궁동	"	"
	김제길	오금동	"	"
	손영선	오금동	"	"
	방상익	수리동	"	"
	장후동	수리동	"	"
	권순태	궁내동	"	"
	유삼중	궁내동	"	"
	김주삼	광정동	"	"
김진용	광정동	"	"	
송만용	대야동	"	"	

출처 : 군포시의회, 1997, 『제2대 군포시의회 제1기』 의정백서; 군포시의회, 1999, 『제2대 군포시의회 제2기』 의정백서.

3) 군포시의회, 1997, 『제2대 군포시의회 제1기』 의정백서; 군포시의회, 1999, 『제2대 군포시의회 제2기』 의정백서.

1995년의 제36회 임시회(7. 11~14.)에서는 1995년 7월 11일 재적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하여 제1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1기 의장에는 노재영(재궁동) 의원, 부의장에는 이원남(산본2동)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7년 1월 7일 제51회 임시회(1. 7~9.)에서는 재적의원 20인 전원이 참석하여 제2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의장단 선거 결과 의장에 이재권(산본1동) 의원, 부의장에 김진용(광정동) 의원이 선출되었다.

2) 의정활동

제2대 의회는 제36회부터 제59회까지 총 24회기를 운영하였는데, 정기회 3회, 군포시장 요구에 의한 임시회 11회, 의원 요구에 의한 임시회 10회이다. 회기일수는 총 389일이었으며 그중 회의일수는 총 158일로 본회의 개최일수 70일, 위원회 개최일수 319일이었다.

제2대 군포시의회는 운영기간 동안 총 34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내용별로 보면 조례안 심의 124건, 예산·결산안 심의 29건, 동의 및 승인안 처리 26건, 건의·결의안 18건, 규칙·규정안 2건, 청원 3건, 기타 145건이다. 조례안건 124건 중 117건(94.4%)이 가결, 5건이 부결, 1건이 철회, 1건이 폐기 처리되었다. 가결안 117건 중 102건(87.2%)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15건(12.8%)이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표 7〉 제2대 의회 의안 처리 현황

연도	계	조례안	예산·결산안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규칙·규정안	청원	기타
합계	347	124	29	26	18	2	3	145
1995	62	21	6	7	3	-	-	25
1996	140	55	10	5	11	2	3	54
1997	114	39	10	9	3	-	-	53
1998	31	9	3	5	1	-	-	13

출처 : 군포시의회, 2002, 『의회10년사』; 군포시의회, 1997, 『제2대 군포시의회 제1기 의정백서』; 군포시의회, 1999, 『제2대 군포시의회 제2기 의정백서』.

(1) 1995년 의정활동

제41회 정기회(11. 25~12. 29.)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군포시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에 관한 건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임시회는 총 4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37회 임시회(8. 10.)에서는 경기도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제38회 임시회(8. 28~9. 2.)에서는 '군포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4건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제39회 임시회(10. 16~27.)에서는 '군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쓰레기소각시설 건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제40회 임시회(11. 15~18.)에서는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건의안',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2) 1996년 의정활동

제50회 정기회(11. 25~12. 28.)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군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 등 7건,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 및 소각방식(스토카식)에 대한 재검토 건의안', 기타 안건 17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임시회는 총 8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42회 임시회(1. 17~18.)에서는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 재검토건의안'과 '조원극 군포시장 자진사퇴 권고결의안' 등 총 2건을 의결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제43회 임시회(2. 12~15.)에서는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의규칙 개정규칙안' 등을 의결하였고, 제44회 임시회(5. 8.)에서는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제45회 임시회(5. 29~31.)에서는 '학교급식 조기확대실시 건의안' 등을, 제46회 임시회(6. 17~7. 1.)에서는 '군포시 명예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석용 안양시장의 안양·군포·의왕시 통합발언 중단촉구결의안' 등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제47회 임시회(8. 28~9. 4.)에서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제48회 임시회(9. 6.)에서는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한주택공사의 군포시 산본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소명자료제출 요구결의안' 등을, 제49회 임시회(10. 26~11. 5.)에서는 '군포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 '19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본신도시 주공10단지·14단지 사회복지관시설 보완촉구결의안' 등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제2대 의회 총무위원회의 현장 방문 활동(1997. 7. 15.)

(3) 1997년 의정활동

제57회 정기회(11. 25~12. 29.)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4건, '199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융계획' 등 동의

안 6건, 기타 안건 15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제52회 임시회(2. 14~18.)에서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53회 임시회(4. 23~5. 3.)에서는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철도정거장 신설건의안' 등을 각각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제54회 임시회(7. 12~18.)에서는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쓰레기소각장의 스토카식 소각로설치계획 변경결의안' 등을, 제55회 임시회(9. 10~24.)에서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제56회 임시회(11. 1~4.)에서는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을 각각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4) 1998년 의정활동

제2대 의회 마지막 연도인 1998년에는 임시회만 총 2회 개최되었다. 제58회 임시회(3. 16~25.)에서는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결의안',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 등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제59회 임시회(5. 2~13.)에서는 '군포시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4. 제3대 시의회의 구성과 의정활동⁴⁾

1) 원 구성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군포시 11개 선거구에서 11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김영숙(재궁동)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2001년 7월 3일부터는 10명의 의원이 활동하였다. 제3대 의회는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선거 이후 처음 소집된 1998년의 제60회 임시회(7. 7.)에서는 재적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하여 의장·부의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의장에는 송만용(대야동) 의원, 부의장에는 김영숙 의원이 선출되었다. 2000년의 제75회 1차 정례회(7. 1~19.)에서는 재적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하여 제2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의장단 선거 결과 의장에는 김진용(광정동) 의원, 부의장에는 권원혁(군포1동)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표 8〉 제3대 의회 원 구성 현황

직위	성명	지역구	임기시작일	임기만료일
제1기 의 장	송만용	대야동	1998. 7. 7.	2000. 7. 6.
제1기 부의장	김영숙	재궁동	"	"
제2기 의 장	김진용	광정동	2000. 7. 7.	2002. 6. 30.
제2기 부의장	권원혁	군포1동	"	"
의원	권원혁	군포1동	1998. 7. 1.	2002. 6. 30.
	이재수	군포2동	"	"
	김갑철	산본1동	"	"
	이문섭	산본2동	"	"
	최진학	금정동	"	"
	김영숙	재궁동	"	2001. 7. 2.
	김제길	오금동	"	2002. 6. 30
	송재영	수리동	"	"
	이경환	궁내동	"	"
	김진용	광정동	"	"
송만용	대야동	"	"	

출처 : 군포시의회, 2003, 『제3대 군포시의회』 의정백서.

4) 군포시의회, 2003, 『제3대』 의정백서.

2) 의정활동

제3대 의회는 제60회부터 제92회까지 총 33회기를 운영하였는데, 정기회 2회, 정례회 4회, 군포시장 요구에 의한 임시회 21회, 의원 요구에 의한 임시회 6회이다. 회기일수는 총 319일이었으며 그중 회의일수는 총 306일로 본회의 개최일수 78일, 위원회 개최일수 228일이었다.

제3대 군포시의회는 운영기간 동안 총 60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내용별로 보면 조례안 심의 229건, 예산·결산안 심의 40건, 동의 및 승인안 처리 68건, 건의·결의안 12건, 규칙·규정안 3건, 청원 2건, 기타 250건이다.⁵⁾

〈표 9〉 제3대 의회 의안 처리 현황

연도	계	조례안	예산·결산안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규칙·규정안	청원	기타
합계	604	229	40	68	12	3	2	250
1998	105	36	8	16	1	2	-	42
1999	150	67	10	15	1	1	-	56
2000	170	56	10	25	6	-	2	71
2001	136	44	10	8	4	-	-	70
2002	43	26	2	4	-	-	-	11

출처 : 군포시의회, 2002, 『의회10년사』; 군포시의회, 2003, 『제3대 군포시의회 의정백서』.

(1) 1998년 의정활동



제6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1998. 12. 19.)

제63회 정기회(11. 25~12. 29.)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군포시정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 '1999년도 군포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금 운용계획안' 등 의결안 12건, 기타 15건 총 49건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제3대 군포시의회 출범 첫해에는 두 차례의 임시회가 운영되었다. 제61회 임시회(9. 14~28.)에

5) 『제3대 군포시의회 의정백서』(군포시의회, 2003)에는 총 628건 등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통계에는 오류가 있다. 여기에 제3대 의회의 안건처리 현황은 이 자료와 『의회10년사』(군포시의회, 2002)에 수록된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서는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등 총 35건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제62회 임시회(10. 24~30.)에서는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등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2) 1999년 의정활동

제71회 정기회(11. 25~12. 29.)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8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승인안 10건, 기타 13건 총 45건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임시회는 총 7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64회 임시회(2. 4~8.)에서는 '군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65회 임시회(5. 13~25.)에서는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에 관한 조례안',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지원협약 승인사항' 등의 안건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제66회 임시회(6. 26~30.)에서는 '군포시 기계류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 등을, 제67회 임시회(7. 24~28.)에서는 '군포시 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68회 임시회(8. 23~24.)에서는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69회 임시회(10. 15~26.)에서는 '군포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제70회 임시회(11. 8~10.)에서는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3) 2000년 의정활동

제75회 1차 정례회(7. 1~19.)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의 정기회가 1·2차 정례회로 개편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1차 정례회에서는 '군포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안',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등 총 21건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제80회 2차 정례회(12. 1~18.)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양교도소 이전반대 결의문채택' 등 총 49

건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임시회는 총 8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72회 임시회(1. 27~31.)에서는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법률상담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73회 임시회(5. 20~31.)에서는 ‘군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제74회 임시회(6. 8.)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단체 문제점 진상조사 및 적법조치 촉구건의안’ 등을 각각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제76회 임시회(7. 25~26.)에서는 ‘수도권광역도시권 지정추진반대결의문 채택’, ‘군포시의회 수해대책 및 광역도시권지정추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77회 임시회(9. 16~20.)에서는 ‘군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제78회 임시회(10. 14~23.)에서는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포시 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제79회 임시회(11. 15~20.)에서는 ‘200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한편 제81회 임시회(12. 19~22.)에서는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포시공무원정원 관련 건의문 채택’ 등을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4) 2001년 의정활동

제86회 정례회(7. 2~18.)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0년도 결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제89회 정례회(12. 1~18.)에서는 군포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 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처리 안전은 총 28건으로, 예산안 2건,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1건, 시정질문 1건, 기타 24건이다.

임시회는 총 7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82회 임시회(1. 12~15.)에서는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83회 임시회(3. 31~4. 12.)에서는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법률상담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군포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동의안’ 등을 각각 의안대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제84회 임시회(5. 4~8.)에서는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일본역사교과서왜곡 시정촉구결의문 채택’ 등을, 제85회 임시회(6. 7~12.)에서는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제87회 임시회(10. 15~19.)에서는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88회 임시회(10. 27~11. 2.)에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제90회 임시회(12. 20~24.)에서는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5) 2002년 의정활동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연도인 2002년에는 임시회만 총 2회 개최되었다. 제91회 임시회(3. 16~26.)에서는 ‘군포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92회 임시회(5. 4~14.)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5. 제4대 시의회의 구성과 의정활동⁶⁾

1) 원 구성

제4대 군포시의회의 의원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군포2동과 대야동을 합쳐 1개 선거구로 하고 나머지 행정동을 각각 1개 선거구로 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4대 의회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2002년의 제93회 임시회(7. 3.)에서는 제4대 시의회 원 구성을 위해 제1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4대 의회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제1기 의장에는 권원혁(군포1동) 의원, 부의장에는 김진호(재궁동) 의원이 선출되었다. 2004년의 제112회 임시회(6. 28~29.)에서는 제4대 후



미국 그랜트 카운티(Grant County) 사절단의 시의회 방문(2003. 4. 21.)

6) 군포시의회, 2007, 『시정백서(제4대)』.

반기 군포시의회 원 구성을 위해 의장단을 선출하였는데, 그 결과 제2기 의장에는 김제길(오금동) 의원, 부의장에는 이재수(군포2동·대야동) 의원이 선출되었다.

〈표 10〉 제4대 의회 원 구성 현황

직위	성명	지역구	임기시작일	임기만료일
제1기 의 장	권원혁	군포1동	2002. 7. 3.	2004. 7. 2.
제1기 부의장	김진호	재궁동	"	"
제2기 의 장	김제길	오금동	2004. 7. 3.	2006. 6. 30.
제2기 부의장	이재수	군포2동, 대야동	"	"
의원	권원혁	군포1동	2002. 7. 1.	2006. 6. 30.
	김재일	산본2동	"	"
	김제길	오금동	"	"
	김진호	재궁동	"	"
	김판수	수리동	"	"
	송정열	산본1동	"	"
	이경환	궁내동	"	"
	이재수	군포2동, 대야동	"	"
	조완기	광정동	"	"
	최진학	금정동	"	"

출처 : 군포시의회, 2007, 『(제4대) 의정백서』.

2) 의정활동

제4대 군포시의회는 제93회부터 제130회까지 총 38회기를 운영하였는데, 정례회가 8회, 군포시장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가 24회, 의원 요구에 의한 임시회가 6회였다. 회기일수는 총 311일이었으며, 그중 본회의 개최일수가 82일, 위원회 개최일수가 229일이었다.

제4대 군포시의회는 운영기간에 총 5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내용별로 보면 조례안 심의 171건, 예산·결산안 심의 50건, 동의 및 심의안 처리 72건, 건의·결의안 63건, 기타 159건이다. 조례안건 171건 중 134건(78.4%)은 원안가결, 25건(14.6%)은 수정가결, 그리고 12건(7.0%)은 부결되었다.

(1) 2002년 의정활동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8. 31~9. 17.)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도 결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

의·의결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처리안건은 총 18건으로,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결의안 6건, 결산안 2건, 기타 4건이다. 제98회 제2차 정례회(12. 2~18.)에서는 군포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시정전반에 걸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도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처리안건은 총 25건으로, 예산안 2건,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6건, 시정질문 1건, 결의안 등 11건, 기타 5건이다.

〈표 11〉 제4대 의회 의안 처리 현황

연도	계	조례안	예산·결산안	동의(심의)안	건의·결의안	규칙·규정안	청원	기타
합계	515	171	50	72	63	-	-	159
2002	78	19	8	14	9	-	-	28
2003	124	37	12	22	16	-	-	37
2004	127	39	13	17	17	-	-	41
2005	142	56	14	17	16	-	-	39
2006	44	20	3	2	5	-	-	14

출처 : 군포시의회, 2007, 『제4대』 의정백서.

의장단 선출을 비롯하여 임시회는 총 4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그중 제94회 임시회(7. 26~29.)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지방공무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다. 이어서 제96회 임시회(10. 12~22.)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97회 임시회(11. 18.)에서는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의안' 등을, 제99회 임시회(12. 21~26.)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2) 2003년 의정활동

제103회 제1차 정례회(7. 1~18.)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처리안건은 총 19건으로, '군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등 5건, 결산안 2건, 결의안 7건, 기타 5건이다. 제107회 제2차 정례회(12. 1~17.)에서는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처리안건은 총 21건

으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 예산안 3건, 결의안 8건, 기타 5건이다.

임시회는 총 7회 소집되어 활동하였다. 제100회 임시회(3. 5~13.)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제101회 임시회(5. 7~12.)에서는 '군포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등을, 제102회 임시회(6. 7~14.)에서는 '2003년도 결산안', '군포시 주민감시청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104회 임시회(9. 22~26.)에서는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105회 임시회(10. 9~16.)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포시 사회복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제106회 임시회(11. 18~21.)에서는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등을, 제108회 임시회(12. 20~24.)에서는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3) 2004년 의정활동

제113회 제1차 정례회(7. 1~16.)에서는 '2003년도 결산안' 등 2건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처리안건은 총 17건으로,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 결산안 2건, 결의안 5건, 기타 6건이다. 제116회 제2차 정례회(12. 1~18.)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 3건과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정 질문을 하였다. 처리안건은 총 23건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 조례안 9건, 결의안 6건, 기타 5건이다.

임시회는 총 7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109회 임시회(2. 14~18.)에서는 '군포시의회의원의 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10회 임시회(3. 20~24.)에서는 '군포시 행정운용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111회 임시회(5. 27~6. 8.)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를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제112회 임시회(6. 28~29.)에서는 의장단 선출 및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다루어졌다. 제114회 임시회(10. 8~16.)에서는 '2004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제115회 임시회(11. 20~25.)에서는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또한 제117회 임시회(12. 22~27.)에서는 '2004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을 심의·의결하였다.

(4) 2005년 의정활동

제121회 제1차 정례회(7. 1~19.)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등 결산안 3건과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질문을 하였다. 처리안건은 총 18건으로, 결산안 3건, 조례안 6건, 결의안 3건, 기타 6건이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12. 1~16.)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과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질문을 하였다. 처리안건은 총 19건으로, 예산안 3건, 조례안 1건, 결의안 9건, 기타 6건이다.

임시회는 총 7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118회 임시회(3. 14~17.)에서는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제119회 임시회(5. 2~16.)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20회 임시회(5. 27~30.)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제122회 임시회(9. 6~9.)에서는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제123회 임시회(10. 4~11.)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과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제124회 임시회(11. 21~25.)에서는 '군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제126회 임시회(12. 19~23.)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과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5) 2006년 의정활동

제4대 군포시의회의 마지막 연도인 2006년에는 총 4회의 임시회가 소집되었다. 제127회 임시회(1. 24~25.)에서는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제128회 임시회(3. 15~17.)에서는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제129회 임시회(4. 10~17.)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과 '군포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제130회 임시회(5. 10~11.)에서는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6. 제5대 시의회의 구성과 의정활동

1) 원 구성

제5대 군포시의회의 의원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전체 선거구를 4곳(가, 나, 다, 라)으로 축소하고 선거구별로 1위와 2위 후보자를 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또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어 정당별 득표에 따라 1명의 비례대표가 배정되었다. 그 결과 4개 선거구에서 8명의 시의원과 비례대표 1명 등 총 9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임기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다.

2006년 제131회 임시회(7. 4.)에서는 제5대 시의회 원 구성을 위해 제1기 의장단을 선출하였는데, 의장에는 김제길(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의원, 부의장으로는 송백중(산본1동, 금정동)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2008년 제151회 임시회(6. 30.)에서는 제2기 의장단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에 이경환(가 선거구 : 산본2동 · 궁내동 · 광정동) 의원, 부의장에 김판수(라 선거구 : 재궁동 · 오금동 · 수리동) 의원을 선출하였다.

〈표 12〉 제5대 의회 원 구성

직위	성명	지역구	임기시작일	임기만료일
제1기 의 장	김제길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2006. 7. 4.	2008. 7. 2.
제1기 부의장	송백중	산본1동, 금정동	"	"
제2기 의 장	이경환	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2008. 7. 3	2010. 6. 30.(예정)
제2기 부의장	김판수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	"
의원	김제길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2006. 7. 1.	2010. 6. 30.(예정)
	송백중	산본1동, 금정동	"	"
	이경환	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	"
	김판수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	"
	김동별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	"
	양재숙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	"
	한우근	산본1동, 금정동	"	"
	이문섭	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	"
정명원	비례대표	"	"	

출처 : 군포시의회(<http://www.gunpocouncil.or.kr>).

2) 의정활동

제5대 군포시의회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131회부터 제157회까지 총 27회기를 운영하였다. 그중 정례회가 6회, 임시회가 21회였다.

(1) 2006년 의정활동

제133회 제1차 정례회(8. 28~9. 12.)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등 3건,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의안' 을 심의·의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를 채택하였다. 제137회 제2차 정례회(12. 15~21.)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의 건)' 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군포시장을 출석케 하여 시정질의를 하였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임시회는 총 6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132회 임시회(7. 25~27.)에서는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제134회 임시회(9. 25~29.)에서는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속달지구 외 5개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제135회 임시회(10. 2.)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제136회 임시회(11. 15~21.)에서는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을 심의·의결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38회 임시회(12. 19~22.)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2) 2007년 의정활동

제143회 1차 정례회(7. 2~23.)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등 3건,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

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제146회 제2차 정례회(12. 3~17.)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9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심의·의결하였다.

임시회는 총 7회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139회 임시회(2. 22~27.)에서는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제140회 임시회(4. 12~16.)에서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제141회 임시회(5. 4~14.)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을, 제142회 임시회(6. 4.)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제144회 임시회(9. 11~17.)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제145회 임시회(11. 9~19.)에서는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제147회 임시회(12. 18~24.)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3) 2008년 의정활동

제152회 제1차 정례회(7. 1~21.)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안건으로는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등 3건,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2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을 심의·의결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사죄촉구 결의안'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제156회 2차 정례회(12. 1~18.)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의·의결하고 군포시장을 출석케 하여 시정질문을 벌였다.

임시회는 총 8회가 소집되어 운영되었다. 제148회 임시회(4. 3~4.)에서는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49회 임시회(5.

20~22.)에서는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견’ 등을, 제150회 임시회(6. 9~18.)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52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2008. 7. 8.)

예산안’,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계획변경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제153회 임시회(9. 19~29.)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154회 임시회(10. 28~30.)에서는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당정역사앞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2호관사 매각 및 매입)’, ‘국립한국문학박물관 군포시건립유치건의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제155회 임시회(11. 21~26.)에서는 ‘군포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을 심의·의결하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제 157회 임시회(12. 19~26.)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호 관사 매각 매입)’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4장 자치행정과 시책의 변화

조석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도시경영센터소장

1991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이해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광역 및 기초 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가 부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95년에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1995년부터 총 4번의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렀는데,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한 의견들은 크게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대별된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정치·행정·사회·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방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부정적 평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동시에 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통치의 확고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정치·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포시의 자치행정 환경 및 시책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군포시가 출범한 1989년부터 2007년까지를 기준으로 행정체계·재정·시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

1) 군포시의 『시정백서』는 지금까지 네 차례 발행되었다. 1994년 12월 간행 백서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2000년 12월 간행 백서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2004년 12월 간행 백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008년 12월 간행 백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를 주로 다루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백서가 간행된 해의 현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시정백서』를 주로 참고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 밖에 일부 내용의 경우에는 「통계연보」 등을 참조하였다.

1. 기본 현황

1) 행정구역

시 승격 이전까지 군포 지역은 시흥군 군포읍이었다. 군포읍은 본래 시흥군 남면이었다가 대통령령 제9409호(1979. 4. 7. 공포)에 의거, 1979년 5월 1일에 당시 양주군 미금면, 평택군 팽성면 등과 함께 읍으로 승격하였다. 군포라는 지명이 행정지명으로 사용된 것도 이때부터다. 군포 지역은 읍으로 승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1989년 1월 1일에 법률 제4050호(1988. 12. 31. 공포)에 의거, 시흥군 의왕읍, 남양주군 미금읍, 화성군 오산읍 등과 함께 시로 승격하였다.



법정동 및 시 경계도

〈표 1〉 행정동 및 법정동 현황

행정동(11개 동)	법정동(9개 동)
군포1동	당정동, 당동
군포2동	당동, 부곡동
산본1동	산본동
산본2동	산본동
금정동	금정동
재궁동	금정동
오금동	금정동, 산본동
수리동	산본동
궁내동	산본동
광정동	산본동
대야동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2005년 군포시와 의왕시 간 경계 조정 현황

시 승격 당시 군포시는 금정동·당동·당정동·부곡동·산본동 등 5개 법정동에 군포1동·군포2동·금정동·당정동·산본1동·산본2동 등 6개 행정동 체계를 갖추었다. 그 후 몇 차례의 행정동 분화와 인접 시군과의 행정동 경계 조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먼저 1992년 5월 1일에는 금정동이 금정동과 재궁동으로, 1993년 1월 14일에는 재궁동 일부와 산본1동 일부가 오금동으로, 1993년 6월 8일에는 산본2동이 산본2동과 수리동으로 분동하였다. 법정동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1994년 12월 26일에 당시 화성군 반월면에 속하던 대야미리·도마교리·둔대리·속달리가 편입되어 각각 법정동이 되고, 이들 4개 법정동을 묶어 행정동인 대야동을 설치하였다. 이때 의왕시 및 안양시와도 일부 경계 조정이 이뤄져 군포시의 면적은 이전 20.70km²에 비해서 1.7배 증가한 36.08km²가 되었다. 또한 1995년 2월 28일에는 산본2동에서 광정동이 분동하였고, 1998년 10월 1일에는 당정동이 인구 과소 동 폐합에 의해 군포1동에 통합되어 현재와 같은 9개 법정동에 11개 행정동 체계를 갖추어 유지되고 있다. 현재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행정동의 수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99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진행된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의왕시 이동 일부가 포함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시에 걸쳐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양회기지와 복합화물터미널도 2개 시에 걸쳐 있었다. 이에 군포시와 의왕시는 수차례에 걸쳐 경계조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군포시에 위치한 양회기지 일부는 의왕시 이동으로 편입하고,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부곡택지개발지구·복합화물터미널 및 영동고속도로에 속한 의왕시의 일부 구역을 군포시로 편입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 23일에 대통령령 제18872호 「부산광역시 서구 등 4개 시·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고 그해 7월 24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경계 조정이 마무리되어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2) 시의 상징

(1) CI(Cooperate Identity)

군포시의 CI는 세 차례 제정되었다. 첫 번째는 1989년 시 승격과 함께 쓰인 것으로, 1989년 5월 30일 제정·공포된 조례 제124호 「군포시 시기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CI는 시민 모두가 팔을 벌려 마주잡고 있는 모습으로 '애향(愛鄕)과 화합하는 시민의 기상' 및 '시민을 떠받드는 위민행정(爲民行政)'을 형상화하였다. '깨끗한 시민과 청렴한 공무원'을 상징하는 흰색 바탕에 '활기차고 균형 있는 전원도시'를 상징하는 녹색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군포시 CI의 변화(좌로부터 1989년, 1994년, 2003년)

두 번째 CI는 1994년부터 쓰인 것으로, 1994년 7월 13일 개정·공포된 조례 제345호 「군포시 시기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CI는 외곽 하단에 흰색으로 시목(市木)인 은행나무의 잎을 바탕으로 두 손을 벌리고 있는 형상으로 '애향심으로 화합하는 시민의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상단에는 푸른색으로 '수리산이 군포를 병풍처럼 에워싼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가운데에 5개의 선을 수직으로 배치하여 '무한한 발전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색채의 경우, 푸른색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포시'를 상징하고, 흰색은 '깨끗한 시민과 청렴결백한 공무원'을 상징한다.

세 번째 CI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으며, 군포의 영문(GUNPO)을 이용한 것이다. 나무 혹은 나뭇잎으로 형상화된 녹색과 도시를 상징하는 푸른색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도시 군포'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2) BI(Brand Identity)

군포시의 BI는 2009년 5월 처음 제정·선포되었다. 'O₂ Gunpo'는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산소처럼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를 상징한다. 'O'와 '2'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 유기적인 움직임과 생동감을 표현하고, '하나 되어 손잡고 나아가는 군포의 미래상'을 의미한다. 또한 물방울 문양은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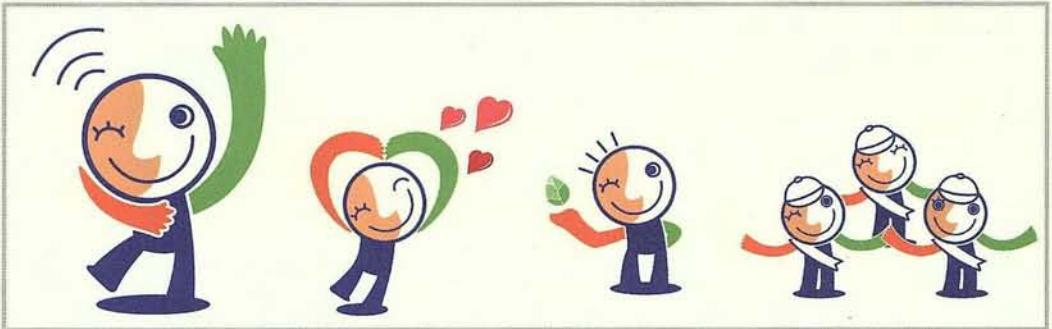


군포시 BI

과 지혜를 모으면, 바위를 뚫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기개와 기상'을 나타낸다. 군포시는 BI 제정을 계기로 2009년 10월 1일 조례 제1051호 「군포시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여 CI와 BI 등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3) 캐릭터

군포시의 캐릭터 '화니'는 2003년에 CI와 함께 제정되었으며, '군포시를 이끌어 가는 건강하고 밝은 시민'을 표현한 것이다. 캐릭터의 얼굴은 즐거운 표정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시민 간의 어울림'을 표현하였고, 팔의 주황색은 '밝은 미래', 초록색은 '깨끗한 자연'을 표현하였다.



군포시 캐릭터 기본형(좌측 첫 번째)과 활용형의 예

(4) 시의 나무·꽃·새

군포시를 상징하는 나무는 은행나무, 꽃은 개나리, 새는 까치이다. 은행나무는 곧고 길게 뻗는 모습으로 '시민의 강직한 심성과 무궁하게 발전하는 시의 미래'를 상징한다. 개나리의 노란 꽃잎은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근면 속에 번영하는 시민'을 상징한다. 곧게 뻗은 개나리의 가지는 '발전하는 시세(市勢)'를 상징한다. 까치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시민의 평화로운 생활상'을 상징한다.

3) 재정의 규모와 자립도

(1) 재정규모

군포시의 재정규모는 시 승격 당시인 1989년에는 169억 8,400만 원에 불과했으나, 1993년에는 600억 2,400만 원으로 1989년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의 꾸준한 증가에서 비롯된 결과이지만, 1990년부터 특별회계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 당시 특별회계에는 광역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도비 전입의 비중이 컸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1993년에는 전해에 비해서 특별회계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1996년에 이르러 재정규모가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해의 재정규모는 1,061억 4,000만 원으로 1989년에 비해서 6.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중 일반회계가 721억 9,500만 원, 특별회계가 339억 4,500만 원이었다. 2007년 재정규모는 3,031억 1,8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2,219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811억 9,100만 원이었다.

〈표 2〉 당초예산 기준 재정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재정규모		신장률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989		16,984	14,215	2,769	-
1990		34,220	23,201	11,019	101.5
1991		57,504	30,558	26,946	68.0
1992		56,156	37,079	19,077	△2.3
1993		60,024	47,917	12,107	6.9
1994		67,668	53,768	13,900	12.7
1995		85,145	59,154	25,991	25.8
1996		106,140	72,195	33,945	24.7
1997		121,322	92,598	28,724	14.3
1998		126,632	93,729	32,903	4.4
1999		117,971	84,505	33,466	△6.8
2000		138,871	99,496	39,375	17.7
2001		168,848	116,317	52,531	21.6
2002		172,507	127,289	45,218	2.2
2003		208,099	148,862	59,237	20.6
2004		238,341	160,290	78,051	14.5
2005		234,979	166,417	68,562	△1.4
2006		291,668	215,210	76,458	24.1
2007		303,118	221,927	81,191	3.9

출처: 군포시, 1994, 『시정백서(1989~1993)』, 124쪽; 군포시, 2000, 『시정백서』, 39쪽; 군포시, 2004, 『시정백서』, 39쪽; 군포시, 2008, 『시정백서』, 39쪽.

재정규모는 1992년과 1999년, 2005년에만 그 전해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였는데, 그중에서도 1999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6.8% 감소하여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나머지 해에서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규모의 평균 신장률은 17.4%에 달했다. 신장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0년으로 전년도 대비 신장률이 101.5%에 달했고, 그 다음 해인 1991년도 68.0%로 매우 높았다.

(2)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에 의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보조금 등에 의한 의존수입으로 대별된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의 제고(提高)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민관공동 출자사업 등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시 승격 초기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1989년에 94.7%에 달했던 재정자립도는 1990년 86.9%로 감소하였지만, 1991년 91.4%로 다시 증가하였고, 1992년 89.4%, 1993년 87.9%로 나타났다.²⁾

〈표 3〉 시 승격 초기(1989~1993) 재정자립도 변화

(단위 : %)

연도	구분	재정자립도	증감
1989		94.7	-
1990		86.9	△7.8
1991		91.4	4.5
1992		89.4	△2.0
1993		87.9	△1.5

출처 : 군포시, 1994, 『시정백서(1989~1993)』, 125쪽.

한편,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시 승격 초기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음에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78.0~89.6%를 유지하여 건전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감소세를 보이더니, 2007년에는 51.8%로 크게 낮아져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를 차지하였다.

2) 군포시가 1994년 간행한 『시정백서(1989~1993)』에 수록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중 어느 것이 기준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시정백서』에 수록된 재정자립도와 행정안전부가 발행하는 『도시연감』에 수록된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몇몇 연도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1989년의 경우, 『시정백서(1989~1993)』에는 94.7%로 기록되었으나 『도시연감』(1990)에는 87.0%로 나타나 있다. 재정자립도는 행정안전부의 '재정고(http://lbf.mopa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수록된 재정자립도 역시 몇몇 연도에서 차이가 난다. 이 글에서는 『시정백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4〉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변화

(단위: %)

연도	구분	재정자립도	증감
1994		78.0	-
1995		78.8	0.8
1996		89.6	10.8
1997		76.2	△13.4
1998		82.4	6.2
1999		84.7	2.3
2000		67.3	△17.4
2001		77.7	10.4
2002		74.2	△ 3.5
2003		71.2	△ 3.0
2004		55.4	△15.8
2005		56.4	1.0
2006		56.7	0.3
2007		51.8	△ 4.9

출처 : 군포시, 2000, 『시정백서』, 39쪽; 군포시, 2004, 『시정백서』, 39쪽; 군포시, 2008, 『시정백서』, 39쪽.

2. 행정체계의 변화³⁾

1) 기구의 변천

시 승격 첫해인 1989년 말 군포시의 행정기구는 2실(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2과(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과, 민방위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1사업소(보건소) 6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⁴⁾ 이후 행정기구가 확대되어 1993년 말에는 2실 2국 16과(본청 15과, 의회사무과) 3사업소 9동으로 편제되었다. 실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었고, 국은 총무국과 개발국이였다. 총무국에는 총무과·사회진흥과·세무과·회계과·시민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민방위과 등 9개 과, 개발국에는 산업과·지역경제과·건설과·도시과·건축과·수도과 등 6개 과가 있었다. 사업소는 보건소(1990. 3. 14. 설치), 상수도사업소(1992. 11. 2. 설치), 시립도서관(1993. 11. 29. 설치)이 있었다.

3) 여기서는 행정기구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된 『시정백서』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4) 군포시, 1999, 『군포시사』, 335쪽.

〈표 5〉 시 승격 초기(1989~1993) 행정기구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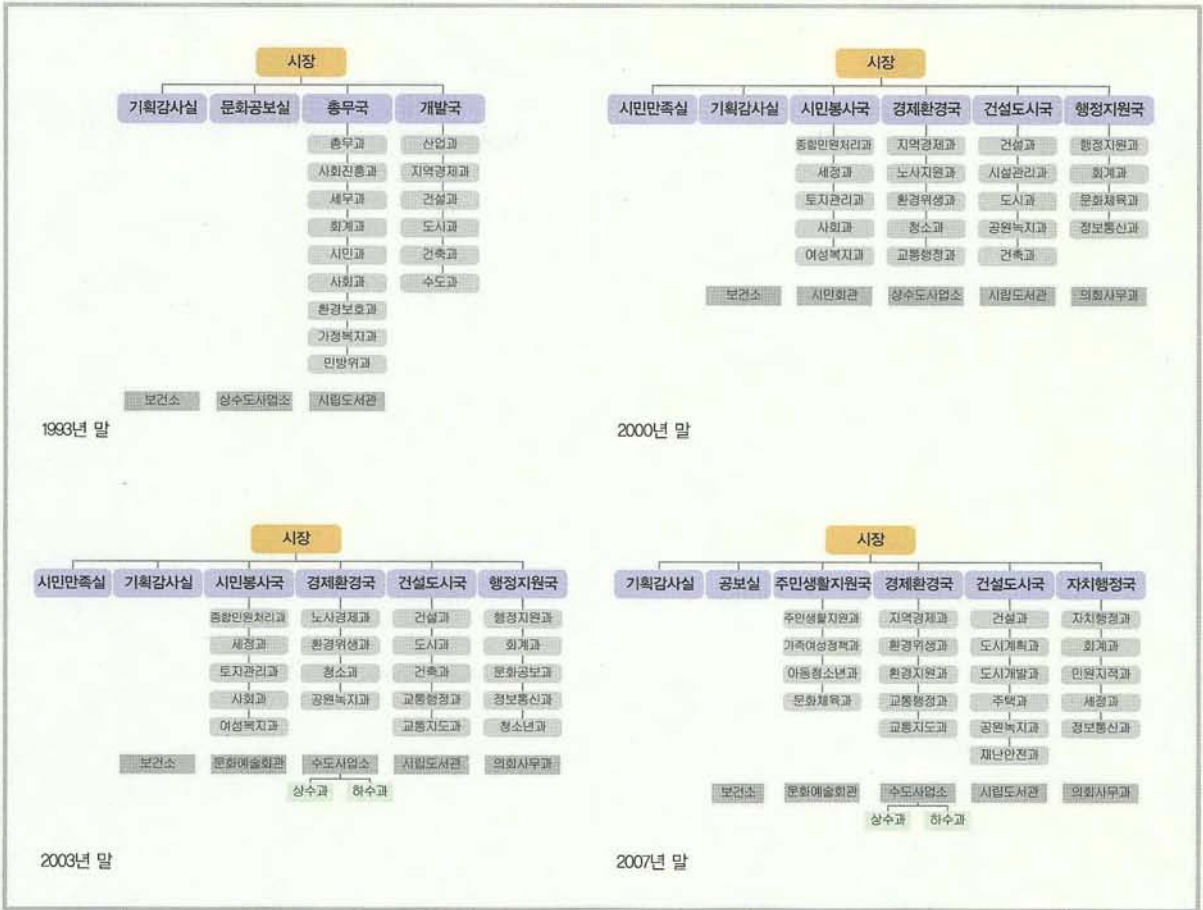
시기	변천 내용
1989. 1. 1.	법률 제4050호에 의거 군포읍에서 군포시로 승격
1990. 3. 14.	군포시 조례 제176호에 의거 보건소 설치
1990. 7. 14.	군포시 규칙 제103호에 의거 총무담당관, 개발담당관실 및 지역경제과 신설
1990. 8. 23.	군포시 규칙 제112호에 의거 가정복지과 신설
1990. 9. 12.	군포시 규칙 제116호에 의거 건축과 신설
1991. 4. 13.	군포시 규칙 제149호에 의거 군포시의회 사무과 신설
1991. 9. 27.	군포시 규칙 제182호에 의거 환경보호과 신설
1992. 4. 10.	군포시 규칙 제203호에 의거 총무담당관을 총무국장으로, 개발담당관을 개발국장으로 직명 조정
1992. 11. 2.	군포시 조례 제289호에 의거 상수도사업소 설치
1993. 11. 29.	군포시 조례 제323호에 의거 시립도서관 설치

출처 : 군포시, 1994, 『시정백서(1989~1993)』, 65쪽.

이러한 변화는 1989년 시 승격 당시 2실 12과 6동이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구 10만 명을 넘어선 1990년에는 총무국과 개발국의 전신인 총무담당관실 및 개발담당관실이 개설되어 지방서기관으로 편제되었고, 1990년과 1991년에는 그 외에 4개 과가 신설되었다. 그 후 매년 기구 확대 및 개편이 있었으나 1993년에는 이를 금지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동결되었다.

한편, 2000년 6월 말 행정기구는 4국 1직속(보건소) 2실 19과 의회사무과 3사업소 11동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94년 12월 26일에 화성군 반월면의 4개 리(대야미리, 도마교리, 둔대리, 속달리)가 군포시로 편입된 것과 1989년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본 신도시 건설로 1992년에 입주가 시작되어 인구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실은 시민만족실·기획감사실이 있었고, 국은 시민봉사국·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행정지원국이 있었다. 과의 경우, 시민봉사국에 종합민원처리과·세정과·토지관리과·사회과·여성복지과 등 5개 과,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노사지원과·환경위생과·청소과·교통행정과 등 5개 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시설관리과·도시과·공원녹지과·건축과 등 5개 과,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회계과·문화체육과·정보통신과 등 4개 과가 편제되었고, 이 외에 의회사무과가 있었다. 사업소로는 시민회관(현 문화예술회관), 상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이 있었으며 직속기관으로 보건소를 두었다.

2000년 이후로도 행정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 말 현재 4국 1직속(보건소) 2실 19과 의회사무과 3사업소 11동으로 편제되었다. 그중 실은 시민만족실·기획감사실, 국은 시민봉사국·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행정지원국이였다. 과의 경우, 시민봉사국에 속한 과는 2000년과 같았고, 경제환경국에 노사경제과·환경위생과·청소과·공원녹지과 등 4개 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과·건축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등 4개 과,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회계과·



행정기구의 변화 비교

문화공보과·청소년과·정보통신과 등 5개 과가 편제되었다. 이 외에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있었다. 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로, 시민회관은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수도사업소에 상수과와 하수과 2개 과가 신설되었다.

2007년 12월 말 군포시의 기구는 4국 1직속(보건소) 2실 20과 의회사무과 3사업소 2과 11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실은 기획감사실·공보실, 국은 주민생활지원국·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자치행정국이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족여성정책과·아동청소년과·문화체육과 등 4개 과,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환경자원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등 5개 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주택과·공원녹지과·재난안전과 등 6개 과,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회계과·민원지적과·세정과·정보통신과 등 5개 과가 편제되었다. 복지와 청소년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아동청소년과가 편제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 외에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있었다. 사업소는 기존과 같았다.

2) 실과소별 기능

군포시 행정기구별 업무는 각 실과소의 기능에 의하므로, 이름만 달라진 경우에는 그 기능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는 미약하던 기능이 크게 확대되기도 하고, 중요시되던 기능이 대폭 축소되기도 한다. 그러한 변화에 맞춰 실과소가 폐지 혹은 신설되고, 그에 따른 업무 분장이 이뤄지게 된다. 이제 그 기능에 변화가 없는 의회사무과를 제외하고, 시기별로 각 실과소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3년 분장사무

1993년 말 「군포시 실과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서명		주요 업무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의 기획조정과 기본운영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재정의 운용관리 •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민원 조사처리
문화공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보도 등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출판사 및 사회단체 등록관리 •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과 유지관리
총무국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전 및 보안과 직원복리후생·통계 관리 • 시·동 행정조직과 공무원 정·현원 관리 • 공무원 인사 및 교양훈련 • 통신 및 전산 관리
	사회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가로환경 및 취약지구 개발 • 건전청소년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세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 세외수입 부과자료 조사 • 지적토지 조사 및 검사 •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출납과 결산 • 물품의 구입·계약업무 • 국·공유 재산 및 관용차량 관리 • 시 분청 시설물 관리
	시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및 주민등록제 신고처리 감독 • 민원 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관리 •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운영 • 호적 제신고의 처리
	사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 • 주민의료보호 업무처리 • 각종 접객업·유흥업·유기장에 대한 지도단속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 • 배출시설 공해감시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지도 • 분뇨·정화조·오수시설 지도감독

부서명		주요 업무
총무국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례 및 노인·아동복지업무 • 부녀복지에 관한 사업
	민방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 운영 및 육성 • 민방위 교육훈련 • 병역의무자의 징집 및 소집
개발국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보전 및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 양곡 및 부산물의 수급조절과 보관가공 • 축산물 위생검사와 시설검열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대책 및 시장관리 • 공산품 품질관리와 수출진흥 • 자동차 운수업 인허가 및 교통량 조사 • 차량운행질서 지도감독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의 기획조정 및 풍수해 예방 • 도로·교량 가설 및 유지관리 • 하천 및 하수도시설 관리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의 조사연구 • 도시공간 녹화 및 조림사업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통제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 처리 • 간이 주택공사의 설계 및 시공 감독 •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 및 준공 처리 • 위법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단속
	수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사용료 관리 및 지방채 발행 • 급수전 및 송·배수관 유지관리 • 상수도시설 증설 또는 확장

출처 : 군포시, 1994, 『시정백서(1989~1993)』, 67~96쪽.

(2) 2000년 분장사무

2000년 12월 말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장~제5장의 규정에 의한 각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서명	주요 업무
시민만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 간담회 등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처리 • 시민의 방 운영에 관한 사항 • 정책개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생활 불편사항 직접해결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의회 및 법무 관련 사항 •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감사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 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영수익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주요 업무
시민봉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종합민원실 운영 • 호적에 관한 사항 •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 병무 및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 공장 및 공해배출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 • 식품제조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각종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세원조사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가 조정과 거래 등에 관한 사항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지적공부정리, 측량검사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 후생,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0.10.7.) • 그 밖에 시민복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지위 향상 및 능력·인력 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여성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취미·교양·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경제환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업·축산업 경영(농촌지도소 포함)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 에너지(가스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 및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환경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중·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 및 위생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처리와 쓰레기종량제 관한 사항 •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관한 사항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주요 업무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수립 • 교통지도 및 주차장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재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 하천·하수 관리 및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건설도시국	시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 불편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동구, 노점상, 광고물, 가로·보안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기동정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및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 구획정리사업 및 개발행정에 관한 사항 •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행정에 관한 사항 • 공원·산림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푸른도시가꾸기 및 가로수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녹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국민주택에 관한 사항 • 무허가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전 및 의식행사 • 일반서무, 복무, 보안, 공무원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선거행정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의 종합관리 •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무, 인사,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 •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지원국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지출 등 경리에 관한 사항 • 물품의 조달,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여성회관 포함) 및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종합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행정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화 및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주요 업무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보건으로 계획 및 시행 지역주민 건강진단 및 질병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사업 방역에 관한 사항 각종 의료허가 관련 사항
시민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공연 관련 사항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
상수도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수공사 대행업소 관리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수도 관련 일반사항
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자료 관리
의회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출처 : 군포시, 2000, 『시정백서』, 35~38쪽.

(3) 2003년 분장사무

2003년 12월 말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장~제5장의 규정에 의한 각 실과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서명	주요 업무	
시민만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간담회 등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처리 시민의 방 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생활 불편사항 직접해결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의회 및 법무 관련 사항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감사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수익 등에 관한 사항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종합민원실 운영 호적에 관한 사항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병무 및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공장 및 공해배출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 식품제조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각종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세원조사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한 사항

부서명		주요 업무
시민봉사국	토지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가 조정과 거래 등에 관한 사항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지적공부정리, 측량검사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사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 후생,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0. 10. 7) • 그 밖에 시민복지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지위 향상 및 능력·인력 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여성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취미·교양·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경제환경국	노사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에너지(가스 등)에 관한 사항 • 노사안정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 및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 농업·축산업 경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환경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중·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청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처리와 쓰레기종량제 관한 사항 •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관한 사항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행정에 관한 사항 • 공원·산림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푸른도시가꾸기 및 가로수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녹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재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 공동구, 노점상, 가로·보안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및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 구획정리사업 및 개발행정에 관한 사항 •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국민주택에 관한 사항 • 무허가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주요 업무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수립 •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지도 및 주차장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 주차차 단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통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전 및 의식행사 • 일반서무, 복무, 보안, 공무원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선거행정에 관한 사항 •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의 종합관리 • 민방위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무, 인사,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 •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지출 등 경리에 관한 사항 • 물품의 조달,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여성화관 포함) 및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물 건립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 문화에 관한 사항 • 예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종합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행정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화 및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시행 • 지역주민 건강진단 및 질병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사업 • 방역에 관한 사항 • 각종 의료허가 관련 사항
문화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연 관련 사항 •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
수도사업소	상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행정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상수원시험에 관한 사항 • 각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수도요금에 관한 사항 • 급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상수업무에 관한 사항
	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수도 공기업 행정운영에 관한 사항 •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하수업무에 관한 사항
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자료 관리
의회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2007년 분장사무

2007년 12월 말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장~제5장의 규정에 의한 각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서명		주요 업무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제도의 운영 • 의회운영 지원 •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도감독 • 통계조사 일반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체평가제 운영 및 평가
공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보도 계획수립 및 활동 • 시정홍보 계획수립 운영 • 시정홍보용 사진 촬영·보존 및 기자재 관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복지대상자 신규 및 실태조사(자산,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욕구 등) •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사회복지기금 관리 •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자활프로그램 개발 • 일자리사업 총괄,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가족여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여성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양성평등 기반 및 문화확산 • 노인복지 관련 업무 • 장애인복지사업 총괄추진 •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아동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집행 • 청소년 교육특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아동보육업무 일반 • 위스타트업무 일반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유지관리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관광·영화·출판인쇄업 신고 • 각종 문화예술행사 일반 • 시립예술단 운영 •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 음향기자재 및 야외공연장 관리 •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수립 및 추진 • 기업유치 및 공장등록 •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 창업보육센터 및 근로자복지관 관리 • 가스안전관리 계획수립 •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 • 농정 총괄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종합계획 •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사무 •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위생교육

부서명		주요 업무
경제환경국	환경자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행정 기본계획 수립 • 재활용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종합대책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일제조사 관리 • 교통시설업무 총괄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폐차업, 매매업) 관련 등록업무 •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 설치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 노상주차장 설치운영 • 주차시설업무 일반
건설도시국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 건설 관련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 폐천 등) 관리 및 정비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관한 업무 • 도로계획 업무총괄 • 도로정비 계획수립 • 보안등, 공동구 관리 • 하천·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 계획업무 • 토지계획 정리사업 • 그린벨트 관리업무
	도시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뉴타운 사업추진 • 공업지역 재정비 • 대야특화발전계획 • 반월호수 주변 공원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주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허가 및 신고처리 • 공동주택 업무총괄 •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중심상가 광고물 정비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산림육장 조성 및 사후관리 •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시행 •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 공원관리 일반
	재난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재난예방 관련 업무 • 민방위 계획수립 및 시행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지출 등 경리에 관한 사항 • 물품의 조달,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여성화관 포함) 및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물 건립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 복식부기 업무일반

부서명		주요 업무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업무의 종합관리 및 지도감독 • 주민등록업무의 지도감독 • 가족관계등록부의 편제 및 처리 • 여권 발급신청 접수처리 •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 토지지가 조정과 거래 등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통계 • 부동산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지방세 징수기획 및 조정 •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 도세 및 시세 관련 업무 일반 • 재산세 부과·징수업무 • 세무조사 일반 •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새울행정(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통신에 관한 업무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으로 계획 및 시행 • 지역주민 건강진단 및 질병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사업 • 방역에 관한 사항 • 각종 의료허가 관련 사항
문화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회관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획공연, 전시계획 수립 및 집행 •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수도사업소	상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상수원사업에 관한 사항 • 각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수도요금에 관한 사항 • 급수에 관한 사항
	하수과	
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포·당동·대야·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 도서관시설물 총괄 유지관리 및 보호
의회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34~38쪽.

3) 공무원 정원과 현황

군포시의 1993년 말 공무원수는 574명으로, 1989년 시 승격 당시 302명에 비해서 272명이 증가하였다. 그 분포를 보면, 본청 312명, 사업소 80명, 동 171명, 의회사무과 11명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88명(67.6%), 기능직 157명(27.3%), 별정직 19명(3.3%), 연구 및 고용직 10명(1.7%)이고, 정원 외에 청원경찰 65명, 일용인부 152명이다.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1997년 말에는 708명에 달했

〈표 6〉 공무원 정원 현황

(199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명)

직종 기구	계	일반직							기능	별정	연구	고용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74	1	4	22	81	117	103	60	157	19	1	9
본청	312	1	3	17	61	69	52	27	68	5	-	9
사업소	80	-	1	3	10	17	14	3	31	-	1	-
동	171	-	-	-	9	29	37	30	52	14	-	-
시의회	11	-	-	2	1	2	-	-	6	-	-	-

출처: 군포시, 1994, 『시정백서(1989~1993)』, 66쪽.

〈표 7〉 연도별 공무원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연도	구분	기구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정원	현원						
1994	정원	610	325	11	26	61	187		
	현원	595	326	11	26	61	171		
1995	정원	649	344	16	26	76	187		
	현원	636	340	15	26	70	185		
1996	정원	688	370	19	27	76	196		
	현원	673	366	17	26	72	192		
1997	정원	708	341	19	37	115	196		
	현원	676	347	19	37	91	182		
1998	정원	616	322	14	27	102	151		
	현원	670	368	13	29	108	152		
1999	정원	608	373	14	27	95	99		
	현원	633	400	14	26	95	98		
2000	정원	612	374	14	26	94	104		
	현원	620	386	12	26	92	104		
2001	정원	614	358	14	33	96	113		
	현원	607	363	13	25	97	109		
2002	정원	618	361	14	33	96	114		
	현원	600	355	13	28	92	112		
2003	정원	644	377	14	33	104	116		
	현원	629	367	13	32	104	113		
2004	정원	662	392	14	32	106	118		
	현원	656	392	13	32	101	118		
2005	정원	695	431	14	34	106	110		
	현원	688	432	13	35	98	110		
2006	정원	710	433	15	36	114	112		
	현원	684	421	14	35	105	109		
2007	정원	727	436	15	50	114	112		
	현원	717	439	14	48	107	109		

출처: 군포시, 2000, 『시정백서』, 34쪽; 군포시, 2004, 『시정백서』, 34쪽; 군포시, 2008, 『시정백서』, 33쪽

다. 이후 1999년까지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IMF 사태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19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92명이 감원되었고, 1999년에는 다시 8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12월 말 공무원 정원 608명의 구성을 보면, 본청 373명, 의회사무과 14명, 보건소(직속) 27명, 사업소 95명, 동사무소 99명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440명(72.3%), 기능직 146명(24.0%), 별정직 13명(2.1%)과 그 외에 정무직 1명, 연구지도 2명, 전문직 6명이다. 또한 정원 외 인력은 청원경찰 55명과 일용인부 151명이다.

우리나라가 IMF 관리로부터 벗어나면서 공무원 정원은 200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여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현원은 2002년까지 계속 감소하였는데, 1997년 676명이었던 현원은 2002년 600명까지 감소하였고, 2003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이르러서야 IMF 사태 발생 이전 현원을 회복하였다. 공무원 정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는 1994년과 1995년 사이 및 1995년과 1996년 사이로 각각 39명씩 증원되었고, 다음으로는 2004년과 2005년 사이로 이때 33명이 증원되었다. 이 외에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15명, 2006년과 2007년에 17명이 증원되었다. 한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동 공무원 현원은 118명에서 109명으로 9명이 감소하였다.

공무원의 정원은 2003년 12월 말 644명이었다. 그 구성을 보면 본청 377명, 의회사무과 14명, 보건소(직속) 33명, 사업소 104명, 동사무소 116명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504명(78.3%), 기능직 134명(20.8%), 별정직 3명(0.5%), 정무직 1명, 연구지도 2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청원경찰 51명과 일용인부 142명이다. 2007년 12월 말의 경우, 정원은 727명이고, 그중 본청이 436명, 의회사무과 15명, 보건소(직속기관) 50명, 사업소 114명, 동 112명이다.

4) 역대 시장

1989년 시 승격부터 2009년 현재까지 군포시는 12대 시장이 재임 중이며, 그간 11명의 시장을 배출했다.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4대 민선시장이 재임 중이며, 그간 3명의 민선시장이 배출되었다. 부시장의 경우, 현재 16대 부시장이 재임 중이다.

〈표 8〉 역대 시장

대	성명	재임기간	대	성명	재임기간
1대	김기형 (金基亨) 	1989. 1. 1. ~ 1989. 12. 26.	2대	류재천 (柳在川) 	1989. 12. 27. ~ 1991. 1. 10.
3대	박창곤 (朴昌坤) 	1991. 1. 11. ~ 1991. 12. 29.	4대	임수복 (林秀福) 	1991. 12. 30. ~ 1993. 3. 28.
5대	신중대 (愼重大) 	1993. 3. 29. ~ 1994. 1. 2.	6대	조재호 (趙宰鎬) 	1994. 1. 3. ~ 1994. 7. 24.
7대	정승우 (鄭承祐) 	1994. 7. 25. ~ 1995. 1. 4.	8대	조영택 (趙泳澤) 	1995. 1. 5. ~ 1995. 6. 30.
9대 (민선1기)	조원극 (趙源克) 	1995. 7. 1. ~ 1998. 6. 30.	10대 (민선2기)	김윤주 (金潤周) 	1998. 7. 1. ~ 2002. 6. 30.
11대 (민선3기)	김윤주 (金潤周) 	2002. 7. 1. ~ 2006. 6. 30.	12대 (민선4기)	노재영 (盧載榮) 	2006. 7. 1. ~ 2009. 12. 31. 현재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708~709쪽.

3. 시기별 주요 시책과 추진 성과

1) 민선 이전 시기(1989~1994)

시 승격 초기의 경우, 시책에서 봉사행정이 강조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더불어 시 승격 초기인 만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애향심 증진이 강조되었고, 산본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시책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연도별 중점 추진 시책을 보면, 우선 1989년에는 '시민본위 봉사행정체제 확립',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능력 배양', '시민애향 결속과 지역사회 안정', '균등한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기반 확충', '살기 좋은 새 도시 기반 구축'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그중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 195세대에 1억 2,400만여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도로 확장, 당동지하차도 착공, 금정배수지 건설, 상·하수 도시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었다.

1990년에는 '믿음과 정이 담긴 민주봉사행정 구현', '자원 참여로 애향 화합과 지역사회 안정', '성숙된 새마을운동의 알찬 추진', '시민복지 증진과 보건 향상', '지방자치제 대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 해결'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는 산본 신도시 건설의 본격화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 해결과 더불어 당동지하차도 완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주력하였다.

1991년의 경우에는 '현장으로 뛰는 새 질서 새 생활 운동', '지방자치역량 제고와 민주행정 구현', '산업평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 '지방문화예술의 발굴과 체육 진흥',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불편요인 해소', '산본 신도시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이 제시되었다. 이해에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요하게 추진되었다.

1992년에는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실천', '공개와 참여로 신뢰행정 구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실 있는 복지 증진과 시민생활 향상', '문화예술활동과 생활체육 진흥', '신도시와 연계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산본 신도시 건설의 완벽한 마무리'가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는 산본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어 6,161세대가 입주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한 종합입주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신뢰받을 수 있는 봉사행정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해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 서명운동과 쓰레기 줄이고 다시 쓰기 운동 등을 추진하여 경기도의 '시군 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다.

1993년에는 '5대 밝은 정신 회복으로 시민의식 선진화', '신뢰받는 민주·봉사행정 실천', '경

제의 활성화와 지역안정 추진', '균형복지 실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개성 있는 새로운 신도시 문화 창출', '지역 균형개발과 교통망 구축', '산본 신도시 마무리와 맑은 물 공급' 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는 1만 8,800여 세대가 신도시에 입주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신도시 연결도로 5개 진입로가 개통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중요하게 추진되었다. 경기도의 '시군 행정 종합평가' 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었다.

1994년에는 '개혁과 능률의 실행정 구현', '미래지향적인 생활개혁 실천',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로 개척',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 '쾌적한 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 '내 고장 문화 육성과 체육 진흥' 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는 경기도 주관 '광고물 정비 추진사항 평가' 에서 우수상과 '시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해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혁과 능률의 실행정 구현

- 전산기기 확보 및 전산교육 운영
 - 교육기자재 확보(컴퓨터 30대, 프린터 6대)
 - 전산교육 운영(8개 반, 500명)
- 365생활민원기동반 운영(6만 6,451건 처리)

② 미래지향적인 생활개혁 실천

- 한마음 군포소식 제작·방영(51편 제작, 1일 3회 방영)

③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로 개척

- 지역특화작물 경쟁력 제고
 - 수박 재배(2가구)
 - 자동개폐시설 설치(2가구)
 - 관수시설 설치(1가구)
 - 관정·스프링쿨러 설치(4가구)
 - 시설원에 현대화 설비(2가구)
- 농기계 반값 구입(농기계 구입비용 50% 지원, 경운기 등 20대)
-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지도단속 36회, 간담회 12회)
- 공산품 전시장 설치 및 전시 활용(1개소 26개 업체, 66개 품목)

④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

-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당동·금정·군포지구 14만 7,470평)
- 시도 4호선 확장공사(길이 380m, 넓이 3m)

-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1,485t/일)
 - 배수관 확장매설(총연장 3.6km, 관경 100~200mm)
 -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길이 55m, 넓이 5m)
 - 궁내동 청사 건립(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60m²)
 - 광정동 청사 건립(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82m²)
- ⑤ 쾌적한 환경 조성 and 복지 증진
- 생활안정자금 융자(29명, 1억 4,500만 원)
 - 물리치료실 운영(38평, 전기광선치료기 등 21종)
 - 도시종합안내체계 개선사업(종합안내표지 등 28개소)
- ⑥ 내 고장 문화 육성과 체육 진흥
- 약수터 및 체육공원 개발(신규 6개소, 정비 5개소 등 총 11개소)

2) 민선 1기(1995~1997)

1995년은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해로,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초대 민선시장으로 조원극 시장이 당선되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간 지역 내부에서 논란의 중심이던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민선 1기 내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내부적 갈등 해소가 시정의 중요 과제가 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신도시 건설 이후 도시개발의 중심이 기존 도시권으로 옮겨가던 때였다.

1995년의 중점 시책으로는 '지방의 세계화 기반 구축', '범시민 화합과 지역 안정', '신경제 기반 구축과 지역산업의 육성',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역 균형발전', '인간 중심의 환경보호와 서



현충탑 제막식



여성회관 개관식

민복지 증진', '생활문화의 보급 확대와 체육 진흥' 이 제시되었다. 이해에 군포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시군 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 '하천제방 정비 평가'에서 우수상, '도로 정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⁵⁾ 1995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개최
- 공공시설물 개방, 시민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로 제공
- 동네체육시설 및 공간 확보, 동호인 육성 지원
- 애국 애항심 고취를 위한 현충탑 건립(1기, 13억 원)

② 지역 균형발전

- 도시계획 재조정(시 전역)으로 지역 균형발전 기반 조성
- 택지조성과 구획정리 사업추진(당동·금정동지구 16만 5,000평)
- 어린이공원 조성(6개소, 5억 6,000만 원)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저수조 관리

③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 현장확인행정 추진으로 시민 불편 해소(1,635건 처리)
-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착실한 정착(864건 처리)
- 공직자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교육 352명, 연수 55명)
- 세무, 주민등록, 예산회계, 지리정보 등 사무자동화 추진

④ 지방문화 육성 지원

- 문화예술단체 설립으로 활동 기반 구축(3개 단체)
- 문화예술행사 개최(29회 개최, 7만 1,350명 참여)

⑤ 시민 사회교육 추진

- 여성회관 개관 운영(27개 과목, 1,522명)
- 청소년 사회교육(13개 과목, 400명)

⑥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

- 안전점검 대책반 운영(5개 반, 38명)
- 재해우려시설 중점관리(애자교 외 4개 시설)

1996년에는 '군포시 발전 4대 기본전략 추진', '시민 대화합과 갈등의 치유', '지방화시대에 부

5) 1995년 이후 군포시의 수상 현황은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군포시정안내'에서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응한 선진행정 구현', '밝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 '탄탄한 지방경제 육성', '질 위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 균형발전 기반 조성', '건전한 문화 보급과 생활체육 진흥' 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 군포시는 경기도가 개최한 '행정연수대회' 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대책협의회 회의

① 주민자치 기반 조성

- 민간부문의 시정 접목(군포발전추진위원회 등 활동 개시)
- 주민의사가 반영된 예산 편성(37건, 8억 6,000만 원)
-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34개 단체, 4억 900만 원)
- 생활현장 불편 해소(10개 분야, 1,528건)

② 환경행정의 기반 구축

- 쓰레기소각장 입지의 해결(진입로 공사 착공)
- 종합환경대책을 위한 근거 마련(환경대책협의회 조례 제정)
-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기능별 보전대책 수립)

③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

- 소외계층에 공영주차장 관리권 위탁(자립기반 조성)
-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운동(경로당,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자)
- 노인여가시설 건립(군포1동·산본2동 각 1개소, 금정동 2개소 등 총 4개소)
- 시립보육시설 확보(운영조례 제정 및 군포2동·재궁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교양·기술 교육 실시, 32과목, 2,855명)

④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29개 교, 1억 4,500만 원)
-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3개 교, 9억 8,100만 원)
- 청소년 사회교육(12개 교실, 450명)

⑤ 지역·산업 간 균형발전 기반 마련



노인복지회관 개관 및 제1회 노인의날 행사



명절 귀성버스 운행

- 군포시 장기발전 구상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완료
- 독자적 도시계획입안권 확보(안양도시계획구역계에서 독립)
- 중소기업 육성근거 마련(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조례 제정)

1997년에는 ‘주민 본위의 행정 구현’, ‘안정되고 살맛나는 건강한 사회 건설’, ‘주민생활과 복지환경의 질적 개선’, ‘환경제일의 푸른 도시 가꾸기’,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개발과 성장 지향의 도시 건설’, ‘군포의 미래상 구현’ 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 해에 군포시는 육군 51사단의 ‘직장예비군 관리 평가’에서 우수상, 경기도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평가’에서 우수상, 내무부의 ‘상수도사업경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7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저소득 소외계층 자립기반 조성

- 사회복지기금 조성(1997~2001년, 10억 원)
- 난치병환자 돕기 운동 전개(70명, 7,900만 원 지원)
- 저소득 소외계층 주차장 위탁(3개 단체, 5,500만 원 적립)
- 가두판매대 설치(저소득층 무상 임대 28개소)
- 사회복지관 개관 운영(매화·주몽·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②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

- 노인복지회관 건립(760평, 55억 3,000만 원)
- 노인여가시설 확충(4개소, 5억 600만 원)
- 경로당 자매결연(간부공무원, 912회 방문)
- 장애인종합복지관 착공(931평, 1997년 10월 착공)

- ③ 주민의사가 반영된 예산 운영(37건, 8억 9,800만 원)
- ④ 범시민 환경대책협의회 구성(환경정책 발굴 시행)
- ⑤ 열린시장실 운영(고질 민원 해소)
- ⑥ 토론문화 정착(시민대토론회 및 시책 발굴)
- ⑦ 폐기물 관리체계 정립(환경미화타운 건립, 1,960㎡)
- ⑧ 수리산보전종합대책 추진(수종 갱신, 조수 보호, 생태계 보전)
- ⑨ 환경연구단 설치 운영(대기·수질환경 보전 기반 구축)
 -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저수지·하천수질 정화사업
- ⑩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기반 조성(민자 유치)
- ⑪ 쓰레기소각시설 건립비 증액(주택공사, 280억 원에서 403억 원으로 증액)
- ⑫ 독자적인 도시계획권 확보(안양·안산 도시계획권에서 분리)
- ⑬ 교통편의 제공
 -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기반 구축(부곡동 1만 평)
 - 마을버스 노선 확보(2개 노선에서 35개 노선으로 확충, 75대 증설)
 - 명절 귀성버스 운행(32개 지역, 1,510명)
 - 시외버스 관내 경유 운행(안산~성남 간 노선 시청 앞 정차)

3) 민선 2기(1998~2001)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 후 7월 1일부터 민선 2기 김윤주 시장이 업무를 시작하였다. 민선 2기는 '큰 시민, 작은 시'를 시정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열린 행정 구현', '복지문화 창달', '환경도시 건설'을 통한 '쾌적한 환경, 살고 싶은 문화도시 건설'을 시정 방침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시정에서 문화가 중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제4회 군포시문화상 시상식

이러한 방침하에서 1998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진흥', '복지환경의 질적 향상', '환

경보전 및 청소행정 강화', '조화롭고 활기찬 지역 균형발전', '문화·체육·교육 진흥', '자치역량의 확충'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 군포시는 경기도의 '납세정리평가'에서 우수상, '도로정비평가'에서 장려상, '도시행정업무수행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98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진흥

- IMF 대비 지역사회 안정화 추진(실직자 공공근로사업, 2,518명)
- 중소기업 육성(300여 기업체에 기업운영자금 313억 원 지원)

② 복지환경의 질적 향상

- 사회복지기금 조성(2억 원)
- 저소득 의료보호 지원(1,178세대, 19억 8,200만 원)
- 무료 경로식당 운영(5개소)
-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영(1억 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757평, 연건평 931평)
- 영유아보육시설 확보(5개소)
-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45세대, 7,600만 원)
- 장애인 무료 진료(173명에서 1,727명으로 확대)

③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 강화

-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1개소, 2억 8,800만 원)
- 테마공원 조성(5개소, 1억 1,600만 원)
- 생태학적 공법에 의한 수질 개선(반월저수지 및 갈치저수지)
-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 추진(쓰레기 실명제 추진)
-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40t/일)

④ 조화롭고 활기찬 지역 균형발전

- 군포역광장 정비(995평, 38억 원)
- 가로환경 정비(보도·도로 정비 5개소, 8억 6,200만 원)
- 도로망 확충(7개 구간)
- 귀성버스 운행(13개 지역 32개 주요 도시)
- 공영주차장 확충(3개소 456면)
- 교통안전시설 정비(신호등·표지판 등 5억 7,900만 원)

⑤ 문화·체육·교육 진흥

- 시민회관 건립(부지 5,134평, 연면적 7,523평)
- 군포시문화상 시상(10월 문화의 달)
- 다목적 실내훈련장 건립(305평, 7억 2,800만 원)
- 동네체육시설 확충(14개소, 2,600만 원)
-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축구 등 41종 246조직, 2만 1,276명)
- 학교 급식시설 지원(26개 초·중학교)
- 학교 어학시설 설치 지원(1억 8,700만 원)

⑥ 자치역량의 확충

- 행정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 정책형성능력 배양(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 행사성 낭비성 예산의 과감한 감축

1999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의 경쟁력 확보와 체질 개혁', '참여와 열린 행정 구현',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창달', '환경 제일의 쾌적한 도시 건설', '공간구조 개편과 자족기능 제고'가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 군포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분석평가'에서 1위를 하여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민관리(민원처리)부문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 평가에서 총 14건을 수상하였다. 1999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안정 도모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1997~2002년, 100억 원)
 - 우수 중소기업 선정 운전자금 지원(91개 업체, 171억 원)
 - 아파트형 공장 건설(5개소 186개 업소 건설, 2개소 140개 업체 입주)
 -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설치(기술·창업·자금·판로 등 지원, 1999년 3월 설치 및 한세대학교와 공동운영)
- 신 노사관계 정립으로 노사안정 도모
 - 노조 관련 업무 전담부서 설치(1998년 10월, 노사지원과 17명)
 - 근로자 장학기금 조성(1999~2003년, 5억 원, 1999년 1억 원 조성)
 - 전국 최초 노사정위원회 구성 운영(근로자·사용자·공무원 각 3인)
 - 노조위원장 시청 1일 근무제 운영(관내 노조위원장 34명)



노사정위원회 회의



산본1동 주민센터 개관식

· 실직자 종합대책 추진

-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시청 현관, 1만 904명 알선, 350명 취업)
- 군포취업광장 행사 개최(시청대회의실, 월 2회 개최, 171명 취업)
- 고용촉진을 위한 기술직업훈련 실시(18개 직종, 176명)
-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추진(4회, 8,990명, 83억 3,500만 원)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도·농간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3개소)
- 대형유통 시설 유치(E-마트 1999년 11월 개장, 이랜드백화점)

② 행정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화

- 11개 전체 동사무소 기능 전환(전국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1999년 4월 15일, 11개 위원회 171명)
⇒ 업무 시 이관(485건, 74%), 인력 시 본청 재배치(52명, 34%)
- 공직자 1인 1통장과의 자매결연(286명)

· 능률과 성과 위주의 행정 추진

- 시민 위주의 효율적인 조직 개편(정원 100명 감축, 약 14%)
⇒ 시민봉사국 조직의 선임부서 배치
- 행정능률 진단(973건, 업무처리속도 30% 향상)
- 목표관리제 추진 및 능력과 성과 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

· 주민자치 가시화와 시민 대화합 도모

- 전국 최초로 통장 직선제 운영(11개 동, 286명)
- 동서화합을 위한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강원도 양양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무안군,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지역별 4개 군)

- 지역감정 해소와 시민 대화합을 위한 군포시민연합회 발족(관내 소재 향우회 5개 단체 참여)
- 해외 도시와 교류협력 추진(미국 클락스빌 시와 자매결연, 1999년 4월 12일)

• 전국 제1의 정보화 구축

- 지역정보화사업 추진(1999~2007년, 전국 시범시 지정, 정보화 기반 조성, 산업·생활·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 사이버시민서비스시스템 구축(1999년부터 추진, 사이버아파트·사이버학교·전자화폐·전자상거래 구축)
- 전자결재 전 실과소로 확대 시행(행정 사무능률 향상과 종이 30% 감축)

• 토론문화의 정착

- 정책 토론회, BS 토론회, 각 부서·직급별 토론회 운영(하의상달의 의사전달체계 구축과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③ 시민의 시정참여와 열린 행정 구현

• 시청사 완전 개방

- 시청 정문을 시민 만남의 장소로 제공(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물 설치)
- 현관을 시민의 쉼터로 제공(기업 홍보, 취업 알선 등 정보 제공)
- 시청 다목적광장을 가족 단위 휴식처로 개방(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물 15종, 파고라 및 벤치, 꽃나무 식재 등)

• 시민만족실 설치 운영

- 직소 및 고질민원 해결, 생활불편사항 신고 즉시 현장 출동하여 해결하는 기동봉사반 운영
- 시민이 원하는 시민만족 시정시책 개발 및 시정연구단 운영
- 시민의방 개설 운영(1998년 7월 설치, 1일 평균 50명 이용)
 - ⇒ 건의사항 접수처리 1,283건, 무료법률상담 128회 1,017건, 세무회계상담 13회 22건, 기타 2,775건
 - ⇒ 상담요원 위촉(변호사 7명, 법무사 6명, 회계사 3명 등 총 16명)

•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공포 시행(민원봉사과, 보건소)
- One-Stop 민원처리체계 구축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 320종 중 164종의 민원을 평균 처리기간 12일에서 7.6일 이내로 단축)
- 파발민원제 운영으로 시민 편의위주의 민원 처리(처리실적 7,632명 1만 1,122건, 1일 평



시민만족실 기동봉사반의 현장 활동



금정역 현장민원실 운영

균 40건)

- 착오 및 지체 민원 보상제 운영(1인당 5,000~2만 원)
-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4개 전철역 및 E-마트 등 총 5개소)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운영
 - 대단위 사업과 주요 시책 시행 전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시민감사청구제 운영(1999년 1월 15일 「시민감사청구 조례」 제정)
 - 주민의사가 반영된 예산 편성(11개 동 63개 사업, 16억 8,500만 원)
 - 전국 최초로 사회단체에 시 보조사업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2회 35개 단체, 1억 8,361만 5,000원)

④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창달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립기회 제공
 - 사회복지사업기금 조성(1997~2001년, 10억 원, 기간 중 연 2억 원 조성)
 -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8,729명, 51억 4,500만 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1999년 11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931평)
 -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1999년 7월, 성진2차 아파트형 공장 167평)
-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및 권익 향상
 - 여성발전기금 조성(1999~2003년, 10억 원, 기간 중 연 2억 원 조성)
 -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1998년 15%에서 1999년 22%로 확대)
 - 여성 취미·교양·기술·직업·창업 교육 실시(4,720명)
 - 공립보육시설 유치(1999년 6월 근로복지공단 시청 내 건립, 911m²)
-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증진
 - 노인복지기금 조성 완료(1995~1999년, 5억 원)
 - 경로당별 '군포지킴이' 사회봉사활동(74개 경로당, 6만 8,000여 명 참가)

- 무료 경로식당 운영(5개소, 1억 2,000만 원, 1일 평균 860명 이용)
- 노인(65세 이상) 무료 진료(보건소, 1만 2,000여 명 한방 및 종합진료)
-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의료시혜 확대
 - 군포2동·대야동 복지문화회관 건립 추진
 - ⇒ 군포2동(1998~2000년 중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6,222㎡, 98억 3,500만 원)
 - ⇒ 대야동(1999~2002년 중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18㎡, 48억 5,500만 원)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신축 이전 추진(1998~2001년, 부곡동 산126-1번지, 지하 2층 지상 3층, 753평, 51억 5,200만 원)
 - 종합병원 관내 유치 추진(병원 신축부지 확보, 산본동 1,270㎡)
 -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의료취약계층 8,900명)
- 교육환경 개선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전국 최초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성 운영(1998년 9월, 24명)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고교 급식시설비 5개 교 8억 100만 원, 어학실 설치 1개 교 900만 원 등 총 6개 교 8억 1,000만 원)
 -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청소년 폭력·탈선·비행 예방 및 단속 실시)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4회 1,200명)
 - 시청 앞 도로 270m 및 시청광장에 주 2회 '차 없는 거리' 운영(총 80회 8만여 명 참여, 야외 무료 영화 상영(5회 1만 5,000명), 양심자전거 운영)
 - 청소년상담실 운영(면접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 등 1,647건 2,290명)
 - 청소년 예절 및 성교육 실시(14개 교 1만 2,030명)
-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 향토사료집 『군포시사』 발간(2,000부)
 -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 개최(총 280회 27만 8,000여 명, 1999년 142회 15만 4,000여 명)
 -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34회 8만 7,000여 명)
 - 체육진흥기금 조성 완료(1995~1999년, 10억 원, 기간 중 매년 2억 원 조성)
 - 실내체육관 건립(시민체육광장 내 350평, 9억 7,900만 원)
 -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7개 사업 1억 7,600만 원)

⑤ 환경 제일의 쾌적한 도시 건설

-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
 - 환경학교 운영(방학 중 연 2회, 학생 및 학부모 366명)
 - 환경관리소 건설(진행공정 87%, 주민대표 8명·시의원 2명·전문가 2명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

- 산본역사·중심상가 일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1,877t, 4,100만 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선정 지원(129개 업소)
 -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1998년 9월 14일 음식물쓰레기재활용협의회 구성,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18회 200명, 아산시 영농조합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민간위탁)
- 자연생태계 복원과 녹음의 창출
 - 특색 있는 테마공원 조성(중앙·양지·능안·묘향·둔전·제일공원, 4억 8,800만 원)
 - 천혜의 자원인 수리산 보전활동 전개(연중 야생조수 보호활동, 등산로 정비, 인공새집 달아주기 등)
 - 도시녹화사업 추진(1996~2003년, 1999년까지 31개소 소나무 외 30종 7만 4,000여 본 식재, 9억 5,700만 원)
 - 생태공법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반월저수지, 당정천 등)
 - 민자 유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1998~2003년, 처리용량 5,000m³/일, 사업비 200억 원)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회의



도시녹화사업

⑥ 지역 균형개발로 자족기능 제고

- 미래 지향적 도시 개발 추진
 - 2016년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
 - 당동, 당정동, 대야동 3개 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3개 지구 38만 6,923평)
 - 군포역광장 정비(3,286m², 6억 8,100만 원)

· 사통팔달의 편리한 도로망 구축

- 도시계획 도로(소로) 개설(3개 구간 1.1km, 39억 4,300만 원)
- 당동~고천 간 도로 개설(1.8km, 542억 1,600만 원)
- 당동지하차도~국도1호선 간 도로 개설(1km, 119억 300만 원)
-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개설(1993~2002년, 2.5km, 606억 5,400만 원)
-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1999~2002년, 962.5m, 243억 2,000만 원)

· 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

- 오금동·수리동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장역(현 수리산역) 설치 추진 (1999~2002년, 전철역사 및 플랫폼 2개소, 82억 원)
- 도심 내 버스차고지 4개소 이전을 위한 공영차고지 건설(1998~2000년, 3만 8,491㎡, 324대 수용, 75억 원)
-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13개 노선 83대)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243개소)
- 명절 귀성·귀경버스 운행(4회 139대, 4,600명 이용)

· 상수도 미급수 지역 해소 및 수도물 안정적 공급

- 농촌지역 상수도관 매설(군포2동, 5.5km, 3억 7,000만 원)
- 가정 수도전 채수검사 실시(매월 37세대, 연간 444세대)
-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추진(4만 6,000t/일, 사업비 357억 원)

2000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문화도시 기반 구축과 청소년 육성', '열린 행정 구현과 행정의 경쟁력 제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 '지역 균형개발로 자족기능 제고'가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 군포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공공부문경영 혁신 우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

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2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다. 또한 한국농률협회가 개최한

'제5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최우수상, 경실련과 행정자치부가 공동 개최한 '제1회 전국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우수상, 행정자치부의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 평가에서 총 16건을 수상하였다. 2000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 공공근로사업 내실 운영(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분야 30억 7,700만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지속 조성(연간 20억 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200억 원 지원)

② 문화도시 기반 구축과 청소년 육성

- 문화복지회관 건립(군포2동 6,222㎡, 대야동 1,818㎡)
- 무형문화재(방짜유기)전수교육관 건립(327평, 3억 300만 원)
- 야외무대 설치(시청 다목적 운동장, 2억 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연건평 1,000평, 108억 원)
- 청소년문화의집 개소(2개소, 4억 1,000만 원)

③ 열린 행정 구현과 행정의 경쟁력 제고

- 민원창구 공무원실명제 실시 및 옐로우 그린카드제 시행
-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처리
- 전 시민 E-mail 갖기 운동 전개(연중)

④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자활, 자립의욕 고취
 - 거택구호비 지원(75세대, 18억 8,600만 원)
 - 자녀학자금 지원(1,300명, 7억 6,700만 원)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30% 이상 참여 확대
- 보건소 신축 이전 추진(총사업비 50억 2,400만 원, 2001년 완공)

⑤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

- 관내 74개 지역을 지정 총 45개 항목에 대한 수질· 대기· 소음 등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3,200만 원)
- 안양천 수계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1999년 5월~2002년)
- 음식물 사료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40t/일, 아산시 영농조합)

⑥ 지역 균형개발로 자족기능 제고

- 도시기본계획(36.38km²) 승인과 더불어 체계적인 재정비 추진

-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2억 2,000만 원)
- 공영차고지 건설(3만 8,491㎡, 324대 수용 규모)

2001년에는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쾌적하고 푸른 환경도시 건설', '생산적 복지 추진으로 사회형평 실현',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문화예술 기반 구축', '지역 균형개발로 자족기능 제고', '행정관리시스템 혁신으로 시정 성과 극대화'가 중점 시책으로 제시



제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 개막식의 고유제

되었다. 이해에 군포시는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 측정'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플뿌리네트워크가 주관한 '전국주민자치센터평가'에서 산본2동이 최우수상, 군포2동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 평가에서 총 18건을 수상하였다. 2001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실천

- 주민의견수렴사업 추진(98건, 92억 원)
- 각 주민센터에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인터넷 공개(2001년 2월부터)

②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 취업정보센터에 상설면접장 운영(시청 현관)
-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구성 운영(수시)
- 공공청사 ESCO사업 실시(시청, 도서관)

③ 쾌적하고 푸른 환경도시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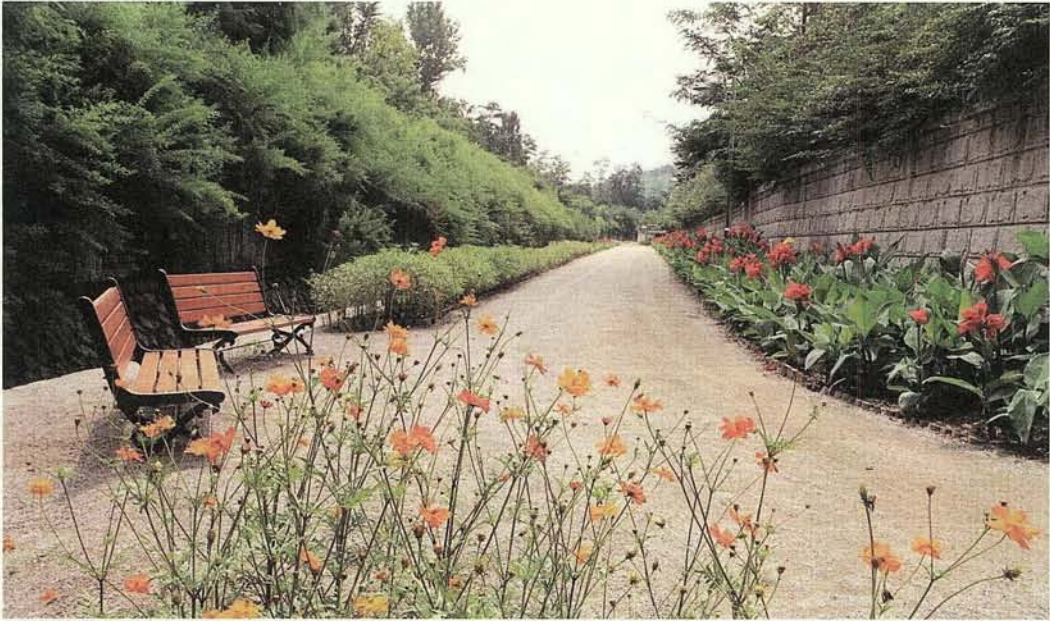
-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38개 노선, 11.7km)
- ISO 14001인증 획득으로 환경행정의 신뢰도 구축
- 녹지네트워크 형성(20개소 15종, 7억 원)

- 우리 들꽃길 조성(수리산 등산로 등 1,000m²)
- ④ 생산적 복지 추진으로 사회형평 실현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2개소 신축, 2억 4,500만 원)
 - 근로복지공단 건립 보육시설 유치(정원 124명)
- ⑤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문화예술 기반 구축
 - 지역 종합문화예술 축제인 군포수리문화예술제(태을예술제와 옷내골문화제 통합) 개최
 - 청소년수련관 건립(99억 4,000만 원, 2002년 완공)
- ⑥ 지역 균형개발로 자족기능 제고
 -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4개 지구, 108만 930m²)
 -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1,253m, 243억 2,000만 원)
 - 이면도로 통행장애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4개소 300면)
- ⑦ 행정관리시스템 혁신으로 시정성과 극대화
 - 시민을 위한 토털 정보화교육 실시(10개 분야, 4,505명)
 - 성과공시제도 확대 운영(18개 분야 163개 지표)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2001~2004년, 31억 7,300만 원)

4) 민선 3기(2002~2005)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로 김운주 시장이 재선출되어 7월 1일부터 민선 3기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민선 3기는 ‘편안한 도시, 행복한 시민’을 시정 목표로 하여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 ‘함께 하는 문화복지’, ‘인간 중심 푸른 환경’, ‘조화로운 도시 발전’,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시정 방침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는 문화복지와 도시 내부의 균형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교육특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정책도 시정의 중요 과제가 되었다.

민선 3기 첫해인 2002년에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문화·예술도시 창출’, ‘인간 중심의 생산적 복지 실현’, ‘맑고 깨끗한 푸른 환경도시 건설’,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 ‘지역 간 조화와 균형 있는 도시 발전’, ‘성과관리 행정으로 시정의 경쟁력 강화’,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서비스행정 실천’이 중요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 군포는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개최한 ‘제4회 환경경영대상’에서 대상, 도시계획학회·경실련 도시계획센터·중앙일보가 개최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크고 작은 외부 평가에서 총 56건을 수상하였다. 2002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군포2동 신가천변 꽃길 조성

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문화·예술도시 창출

- 교육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지원(36개 교, 10억 5,500만 원)
-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 지원(7개 팀, 12개 분야)
-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연면적 3,801.65㎡, 58억 4,000만 원)

② 인간 중심의 생산적 복지 실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지원
 - 출장세차사업단 '샤워 콜' 운영(6명, 3,600만 원)
 - 간병인파견사업단 '군포 보라미' 운영(7명, 4,200만 원)
 - 무료도시락배달사업단 운영(10명, 6,000만 원)
- 신축 보건소 개관(연면적 2,601㎡)과 첨단의료장비 확보(20종)

③ 맑고 깨끗한 푸른 환경도시 건설

- 월드컵 대비 모범·우수업소 인센티브 부여(66개소, 2,300만 원)
- 월드컵 손님맛이 아름다운 꽃길 조성(21개소, 2억 9,000만 원)
- 주민의사가 반영된 녹지·공원사업 추진(70건, 28억 6,000만 원)

④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목표액 100억 원)
- 노사정합동연찬회 등 일체감 조성 추진(6회)

⑤ 지역 간 조화와 균형 있는 도시 발전

- 군포도시계획(기본, 재정비) 수립 추진(4억 7,100만 원)
-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공사(2,500m, 606억 5,400만 원)

⑥ 성과관리 행정으로 시정의 경쟁력 강화

- 정보화시범마을 오금정보타운 구축(2억 9,200만 원)
-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운영(2개소, 11억 원)
- 지방채 제로화 추진을 위한 고율채무 조기 상환(46억 7,200만 원)

⑦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서비스행정 실천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추진(5억 원)
- 행정서비스현장 실천 및 시정만족도 조사 실시(3,000만 원)

2003년에는 '창의적 청소년 육성 기반 구축',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복지 실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도시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기능 제고', '시민 중심의 생산적인 경영행정 실천' 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 군포는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전자정부 구현 추진평가'에서 대통령상,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 평가'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외부 평가에서 총 17건을 수상하였다. 2003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창의적 청소년 육성 기반 구축

-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추진
-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20억 9,200만 원)
-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지속 전개(30억 400만 원)
- 국제 자매결연 단체와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40명 내외)

②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복지 실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원(7개 사업, 6억 8,200만 원)
- 시립 영유아특수보육시설 신설(2개소, 18억 3,700만 원)
- 노인복지회관으로 증축(기존 3층에서 5층으로) 및 경로당 신축(대야동 2개소)
-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연면적 3,992㎡)

③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주민의사가 반영된 녹지·공원사업 추진(51건, 26억 2,800만 원)
-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새 단장(55개소, 15억 8,100만 원)

-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4개 구간 9km, 10억 600만 원)
- ④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도시 건설
 - 대야미역 교통광장 조성(4,689m², 14억 원)
 -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정수시설 안전진단 등 4억 8,800만 원)
 -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3개소, 5억 6,600만 원)
- 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기능 제고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100억 원) 및 자금 융자 지원(200억 원)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연면적 5,620m², 98억 원)
 - 노동단체 및 근로자 지원 확대(3개 단체, 3억 3,000만 원)
- ⑥ 시민 중심의 생산적인 경영행정 실천
 - 인터넷 민원 콜(Call)시스템 구축(2,000만 원)
 -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191명, 2억 500만 원)
 - 통합정보통신실 구축(207m², 1억 1,700만 원)
 - 전 시민 메일링서비스 추진(1,200세대에서 8만 9,000세대로 확대)

2004년에는 '지식과 창의력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 '복지수혜와 문화 참여기회 확대', '민관 파트너십 강화로 푸른 환경 조성', '편리와 안전이 보장된 도시 발전 추진', '경제구조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열린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로 행복경영 구현' 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 군포는 청소년단체협의회와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청소년 육성대상' 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자치부의 '태극기 달기 평가' 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 평가에서 총 42건을 수상하였다. 이해에는 '제4회 주민단치센터 박람회' 에서 많은 수상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2004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식과 창의력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개원(실내체육관 등 11개 시설)
- 다목적 청소년수련원 개원(강당, 펜션, 방갈로 등)
- 교육발전기금 조성(2004년부터 4년간 100억 조성)
- 중·고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9개 교, 6억 원)
- 학교시설개선사업(냉난방시설, 체육문화시설 등 16억 원)
-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3,800만 원)
- 선수층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 꿈나무 육성(1억 4,100만 원)

② 복지 수혜와 문화 참여기회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지원(집수리, 샤워 콜 등 5억 4,000만 원)
-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 활성화 지원(552㎡, 4,000만 원)
- 재궁·오금 시립 어린이집 건립(2개소, 35억 원)
- 노인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16㎡, 2,500만 원)
- 경로당 건강가꾸기 사업(90개소, 1억 2,000만 원)
- 가족과 함께하는 정신보건사업(연 1만 640명, 1억 5,000만 원)
- 군포시 문화유적 발굴 및 자료조사(6,000만 원)
- 시민이 만드는 축제문화 정착(2개 축제, 3억 원)

③ 민관 파트너십 강화로 푸른 환경 조성

-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분야별 시책 및 공동사업 추진(1억 9,000만 원)
- 환경보전을 위한 수질, 대기질, 소음 등 기초조사 실시(3,300만 원)
- 산본천 유역 차집관거 설치로 친수환경 조성(2.5km, 10억 원)
- 자전거도로 설치(3개 구간 4km, 7억 원)
- 수질 향상을 위한 정수시설 개량(응집교환기 36대, 2억 2,000만 원)

④ 편리와 안전이 보장된 도시 발전 추진

- 당정·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13억 원)
-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873억 원)
- 대야미역~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착공(290억 원)
- 도시계획도로(대-3-31호선) 개설공사(26억 원)
-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004년 11월, 31억 원)
- 금정역 북측 출입구 건설(40억 원)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보완(6개소, 10억 원)

- 주차단속 디지털화로 민원유발 최소화(PDA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 ⑤ 경제구조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46개 업체, 7,100만 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활성화(1억 3,900만 원)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5,620㎡, 120억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2005년까지 100억 원 목표)
- ⑥ 열린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로 행복경영 구현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 평생교육 관리기능 강화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유기한 민원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2005년에는 ‘지덕체 겸비한 꿈나무 육성’, ‘풍요와 나눔의 문화복지 실현’, ‘그린네트워크의 도시 조성’, ‘균형 갖춘 미래 도시 건설’, ‘지역경제 구조 고도화 추진’, ‘참여와 혁신의 선진 경영 추진’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개최한 ‘2005년도 지자체 청소년 유해 환경



산본 주공3단지 마을정보사랑방

평가에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교통안전공단의 ‘2005년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시 단위 종합 1위, 경기도의 ‘제10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선정’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 평가에서 총 51건을 수상하였다. 2005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덕체 겸비한 꿈나무 육성

- 군포시 청소년대상 제정(매년 5월, 5개 부문, 500만 원)
- 해외 자매결연단체와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50명 내외)
- 지역교육 수준 향상 명문교 육성 지원(4억 5,000만 원)
- 영어교육 기반 조성(12억 6,000만 원)
 -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영어캠프 및 영어카페 운영

- 과학체험 축제 · 캠프 · 콘서트 등 개최(3,000만 원)
- ② 풍요와 나눔의 문화복지 실현
 - 노인일자리제공사업 확대(9개 부문 210명, 1억 9,100만 원)
 - 장애인복지관 증축(2개 층)
 - We Start 시범마을 추진(6억 원)
 -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한 정기예술무대 운영(연 10회)
 - 마을 정보사랑방 구축(3개소, 2,600만 원)
- ③ 그린네트워크의 도시 조성
 -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백서 발간(1억 600만 원)
 - 자연관찰체험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2,000만 원)
 -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9개소, 1,800만 원)
 - 녹지네트워크 구축(녹지대 정비 2개 구간, 1,500만 원)
 -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확대 추진(1억 3,800만 원)
- ④ 균형 갖춘 미래도시 건설
 - 미래를 열어 갈 군포2020 도시계획 수립(7억 6,000만 원)
 - 죽암천 자연형 하천 정비(1.45km, 80억 원)
 -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공사(10만 5,800m², 60억 원)
 -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92억 원)
- ⑤ 지역경제 구조 고도화 추진
 - 지역경제 발전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500만 원)
 -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12개, 6,000만 원)
 -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추진(40명, 4억 원)
 -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22억 원)
 - 친환경 농업 생산단지 조성(1,800만 원)
- ⑥ 참여와 혁신의 선진 경영 추진

5) 민선 4기(2006~2007)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결과, 노재영 시장이 선출되어 7월 1일부터 민선 4기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민선 4기는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을 시정 목표로 삼고 '활기찬 지역경제', '희망찬 인재

경영', '나눔의 복지사회', '건강한 문화생활', '쾌적한 자연환경'을 시정 방침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시정 방침하에서 2006년에는 '청소년·교육 도약 기반 구축', '더불어 사는 문화복지 실현', '환경정책 시너지효과 제고', '균형 갖춘 미래도시 비전 수립', '지역경제 고도화 기반 조성', '유비쿼터스 혁신의 선진 경

영'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 군포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이 살기 좋은 우수 지자체 선정'에서 전국 3위(경기도 1위)를 차지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이 개최한 '2005년도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 평가에 총 55건을 수상하였다. 2006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완공 직후 금정주차타워

① 청소년·교육 도약 기반 구축

- 청소년 리더십 훈련(500만 원)
-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 300대 프로젝트 추진(3,000만 원)
- 청소년 상담실 및 문화의집 내실 운영(3개소, 4억 2,900만 원)
- 청소년 과학탐구반 멘토링센터 운영(4,200만 원)
-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② 더불어 사는 문화복지 실현

- 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2007~2010년, 3,000만 원)
-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3개소, 6억 원)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2개소, 14억 원)
- 폭력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6,100만 원)
- 국가암관리사업(2억 7,800만 원)
- 문화재 보호관리(3개소, 6억 6,100만 원)
- 어린이도서관 개관(43억 원)

③ 환경정책 시너지효과 제고

-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원 중점 관리(369개소)

- 대기질개선사업 추진(913대, 38억 5,900만 원)
 - 환경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제 도입(2,400만 원)
 -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공사 착공(4,000m³/일, 153억 9,600만 원)
 - 청소자원봉사대 구성·운영(480만 6,000원)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1억 5,000만 원)
- ④ 균형 갖춘 미래도시 비전 수립
- LS전선 부지 활용계획 수립 추진(25만 6,583m², 6억 원)
 - 선교원 부지 개발계획 수립 추진(2만 2,772m²)
 -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소1-210호선 착공(760m, 66억 원)
 - 재난상황관제시스템 구축(5억 5,700만 원)
 -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2억 원)
 - 금정주차타워 건립(지상 3층, 340면, 63억 원)
- ⑤ 지역경제 고도화 기반 조성
- 부곡첨단산업단지 개발구상(안) 마련
 - 산업패밀리 크러스트 지원사업(5,000만 원)
 -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참가(49개 종목, 1,600만 원)
 - 군포벤처박람회 개최(30~40부스, 1억 3,000만 원)
- ⑥ 유비쿼터스 혁신의 선진 경영
- 인터넷 종합법률 서비스 운영(500만 원)
 - 자료관 시스템 설치 및 기록물 DB 구축(15억 원)
 -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 고도화(서버 도입, 7,500만 원)
 - 시 동 간 정보통신망 속도 개선(11개 동 및 사업소, 1억 2,000만 원)

2007년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모이는 청소년 교육도시 조성', '더불어 사는 나눔의 복지공동체 실현', '삶의 가치 관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의 활성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참여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해에 군포시는 행정자치부의 '2007 균형발전 우수 지자체 평가' 에서 최우수상, '간판시범 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경인일보사의 '2007년도 상반기 경인 히트상품' 에 '군포 WE Start 마을' 이 복지서비스 분야 금상, 문화예술회관의 'TOP-SERVICE제 운영' 이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외부 평가에서 총 16건을 수상하였다. 2007년의 주요 시정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시설현대화사업 후 군포역전시장



2007년 군포태울제 중 '봄밤의 음악회'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

-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뉴타운 개발 추진(금정·군포 역세권)
- 대기업 이전부지 등 공업지역 재정비(2007년 7월, 23만 1,700㎡)
- 대야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실시설계(21만 8,463㎡)
- 2020 군포도시 기본계획 수립(2007년 3월)
- 당정전철역사 신설 추진(2009년 12월까지)

②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 부곡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23만 4,711㎡)
- 군포역전시장 시설현대화사업(15억 원)
-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73억 2,600만 원)

③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모이는 청소년 교육도시 조성

- 군포사랑장학회 장학재단 설립(조성목표액 100억)
-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2억 4,000만 원)
-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7개 사업, 1억 1,000만 원)
- 학교도서관의 평생학습센터 운영(5개소, 1억 5,000만 원)
-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1,500만원)

④ 더불어 사는 나눔의 복지공동체 실현

-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51억 조성, 3개 사업 1억 1,000만 원 지원)
- 요보호, 저소득 아동의 복지 증진(6개 사업, 13억 5,800만 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준공(2007년 7월)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6억 8,700만 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114억 9,100만 원)
- ⑤ 삶의 가치관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의 활성화
 - 전통문화 보존육성 및 전승사업 추진(3개 사업, 1,300만 원)
 - 『군포시사』 편찬 추진
 - 군포 시민대축제(3억 4,000만 원)
 - 도시가치 상승을 위한 군포시 축제브랜드 개발
 - 빙상스포츠 메카도시로서의 김연아빙상장 건립 추진
 - 학교운동장의 잔디 축구장 조성(2008년까지 3개소)
- ⑥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3,000만 원)
 - 노후 상수관 교체(10.3km, 36억 8,000만 원)
 -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추진
 - 사계절 변화 있는 꽃길 조성(16만 1,500본 식재, 1억 8,800만 원)
- ⑦ 참여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 민간단체, 시민과의 협력시스템(인력 Pool 활성화)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 추진(지방세 전 과목, 신용카드 8개 회사와 협력)
 -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수리산역 등 6개소, 7,700만 원)

한편, 군포시는 2007년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VISION 2020』 수립을 계기로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⁶⁾ 여기에는 ‘금정 및 군포 뉴타운사업’, ‘당정역 건립’, ‘대야특화발전계획’, ‘수리산도립공원’, ‘국제교육센터’, ‘초막골근린공원’, ‘김연아빙상장’, ‘부곡첨단산업단지’, ‘공업지역재정비’, ‘송전탑지중화’가 속한다. 이 가운데 국제교육센터는 2009년 8월에 완공되어 9월부터 운영 중이며, 당정역도 2009년에 건립이 완료되어 2010년 1월 개통 예정이다. 수리산도립공원화 사업의 경우, 2009년 7월 16일에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었다. 나머지 역점 사업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수립 중이다.

6) 군포시청 '10대 역점사업' (<http://emphasis.gunpo21.net>).